2021

기획연구 2021-02

전라북도 중장기 경제 정책 수립 방안 연구 I

연구진 김시백 · 이강진 · 정미선 · 안동신 · 염보라

Jeonbuk Institute

think 전북연구원

기획연구 2021-02

전라북도 중장기 경제 정책 수립 방안 연구 Ⅰ

think 전북연구원

Jeonbuk Institute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김시백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공동연구	이강진	선임연구위원	제4장
	정미선	전문연구원	제2장 1절 일부, 제2장 2절 일부
	안동신	전문연구원	제4장 1절, 2절
	염보라	전문연구원	제3장 2절 일부, 제3장 2절 일부

연구관리 코드 : 20GI0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 개요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1. 중장기 연구 로드맵 ····· 8

2. 1차년도 과제의 주요 연구 내용 ····· 10

제2장 전라북도 경제 트렌드 ····· 13

제1절 중장기 경제 트렌드 ····· 15

1. 개요 ····· 15

2. 생산 측면에서의 GRDP 트렌드 ····· 17

3. 분배 측면에서의 GRDP 트렌드 ····· 25

4. 지출 측면 GRDP 트렌드 ····· 27

제2절 단기 트렌드 ····· 33

1. 생산 측면 ····· 33

2. 소비 측면 ····· 37

3. 투자 측면 ····· 43

4. 교역 측면 ····· 46

5. 고용 측면 ····· 49

제3절 시사점 ····· 51

1. 트렌드 분석 결과 ····· 51

2. 자료 처리 관련 및 후속 과제 반영 사항 ····· 53

제3장 전라북도 경제요소별 경쟁력 및 영향력 ····· 55
제1절 생산 측면 ····· 57
1. 분석 방법론 ····· 57
2. 분석 결과 ····· 61
제2절 고용 측면 ····· 68
1. 분석 개요 ····· 68
제3절 종합 분석 ····· 72
1. 분석 개요 ····· 72
2. 분석 결과 ····· 73

제4장 전라북도 경제 통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77
제1절 국내 통계 현황 ····· 79
1. 통계청 및 한국은행 승인 통계 현황 ····· 79
2. 지역 통계 문제점에 대한 선행 연구 ····· 83
3. 지역 통계 활용 연구 사례 ····· 86
제2절 경기종합지수 작성 사례 ····· 89
1. 경기순환예측 유형 ····· 89
2. 광역지자체 단위의 경기종합지수 ····· 91
제3절 기존 통계자료 한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 95

참고문헌 ····· 99

부록 ····· 103
1. 지역별·연도별 재화 및 서비스 이출입 현황 ····· 105
2. 전라북도 연도별·산업별 국내 이출입 현황 ····· 113

표 목 차 | Contents

〈표 2-1〉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 ····· 35
〈표 2-2〉 전북지역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 36
〈표 2-3〉 전북지역 가계소비지출 추이(전년 대비 변화율) ····· 38
〈표 2-4〉 전북지역 소매판매액지수 추이 ····· 39
〈표 2-5〉 전북지역 신용카드 매출액 추이(전년 동월 대비) ····· 41
〈표 2-6〉 전북지역 용도별 건축허가면적 추이(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 44
〈표 2-8〉 전북지역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 46
〈표 2-9〉 전북지역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 47
〈표 2-10〉 전북지역 주요 품목별 수입 추이 ····· 47
〈표 2-11〉 전북지역 주요 국가별 수입 추이 ····· 48
〈표 2-12〉 전북지역 고용 동향(전년 동기 대비) ····· 49
〈표 2-13〉 전북지역 취업자 동향(전년 동기 대비) ····· 50

〈표 3-1〉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모형에 의한 산업 성장 기여도 분류 ····· 61
〈표 3-2〉 기간별 산업별 실질성장률 차이 변화 추이(1,2차 산업) ····· 62
〈표 3-3〉 기간별 산업별 실질성장률 차이 변화 추이(3차 산업) ····· 63
〈표 3-4〉 산업별 성장률 시차 분석 결과(1,2차 산업) ····· 65
〈표 3-5〉 산업별 성장률 시차 분석 결과(3차 산업) ····· 66
〈표 3-6〉 산업 성장 기여도에 따른 전라북도 산업 유형 분류 ····· 67
〈표 3-7〉 지역별 고용탄력성 비교(2000년~2020년) ····· 69
〈표 3-8〉 지역별 고용계수 비교(2000년~2020년) ····· 70
〈표 3-9〉 지역별 지역경제 성장기여율 분석 결과(2000년~2020년) ····· 74
〈표 3-10〉 지역별 지역경제 성장기여 요인 순위 비교(2000년~2013년) ···· 75

〈표 4-1〉 국내 기관구분별 승인통계 현황 ····· 79
〈표 4-2〉 광역지자체별 작성 승인통계 현황 ····· 80
〈표 4-3〉 통계 부문별 승인통계 현황 ····· 81

〈표 4-4〉 통계 부문별 승인통계 현황 ····· 82
〈표 4-5〉 지역 통계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 83
〈표 4-6〉 주제별 전체 자료와 지역 자료의 상대 빈도 ····· 84
〈표 4-7〉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지역 통계 활용 연구 리스트 ····· 88
〈표 4-8〉 기업경기지수 유형 ····· 89
〈표 4-9〉 지역별 경기동행종합지수 작성 현황 ····· 91
〈표 4-10〉 지역별 경기선행종합지수 작성 현황 ····· 92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전라북도 GRDP 성장률 추이 ····· 3
〈그림 1-2〉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 로드맵 ····· 9
〈그림 1-3〉 세부과제 1 추진 체계 ····· 11
〈그림 1-4〉 세부과제 2 추진 체계 ····· 12

〈그림 2-1〉 전국 및 전북 GRDP 성장률 추이 ····· 15
〈그림 2-2〉 산업별 전국 대비 전북의 경제 규모 비중 ····· 17
〈그림 2-3〉 전라북도 산업 비중 ····· 18
〈그림 2-4〉 2차 산업 성장률 추이 ····· 19
〈그림 2-5〉 전라북도 경제 내 주요 제조업 비중 ····· 19
〈그림 2-6〉 주요 제조업별 전북 GRDP 성장 기여도 ····· 20
〈그림 2-7〉 3차 산업 성장률 추이 ····· 21
〈그림 2-8〉 주요 서비스업별 전북 GRDP 성장 기여도 ····· 22
〈그림 2-9〉 지역 경제 규모 대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 23
〈그림 2-10〉 지역 경제 규모 대비 산업별 사업체 비중 ····· 24
〈그림 2-11〉 지역 경제 규모 대비 산업별 종사자 비중 ····· 24
〈그림 2-12〉 지역 경제 규모 대비 산업별 종사자 비중 ····· 25
〈그림 2-13〉 전라북도 역외 소득 유출 추이 ····· 26
〈그림 2-14〉 지출 부문별 GRDP 대비 규모 비중 ····· 27
〈그림 2-15〉 경제 규모 대비 지출 규모 ····· 28
〈그림 2-16〉 경제 규모 대비 주체별 소비지출 규모 ····· 28
〈그림 2-17〉 경제 규모 대비 투자 규모 ····· 29
〈그림 2-18〉 경제 규모 대비 건설 투자 규모 ····· 30
〈그림 2-19〉 전라북도 교역 수지 ····· 31
〈그림 2-20〉 전북 지역 소비자심리지수 월별 추이 ····· 40
〈그림 2-21〉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전월 대비) ····· 42
〈그림 2-22〉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추이(전월 대비) ····· 42

〈그림 2-23〉 전북 지역 설비투자지수 월별 추이 ····· 43
〈그림 2-24〉 전북지역 기업 자금사정 BSI ····· 45
〈그림 2-25〉 전북지역 기업 인력사정 BSI ····· 50
〈그림 2-26〉 동행지수 및 GRDP 변화율 추이 비교 ····· 54

〈그림 3-1〉 지역 성장의 요인별 분류 ····· 58

1 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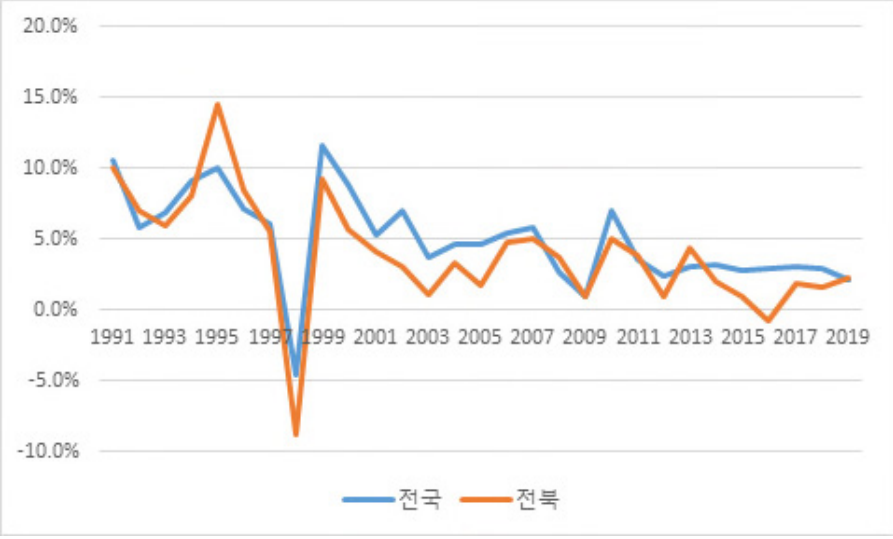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전라북도 GRDP는 1999년대 IMF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평균 8.2%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수준과 유사한 경제 성장을 보여왔으나, 2000년대에는 3.5%, 2010년대에는 1.9%대로 급격하게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2015년 이후 현대중공업 철수, GM군산공장 폐쇄 등의 제조업 분야의 악재들을 사전에 체크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장기적인 악영향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 통계청

〈그림 1-1〉 전라북도 GRDP 성장률 추이

❍ 2000년 이후 전라북도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경기침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거나 현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경제 트렌드에 대한 진단을 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경기 변동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향후 경기 전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2018년 GM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군산 지역의 산업 경제 기반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사실 이에 대한 징후는 2015년 이전부터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 또한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시간적인 딜레이로 인해 위기 현상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해 지정 논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 이러한 경험을 겪고 나서 지역 경제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단할 수 있는 분석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 내에서 제기가 되었고 여러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전망을 할 수 있는 모형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재 전북연구원 차원에서 과거에 여러 연구 수행을 통해 지역 경제 요소에 대한 분석과 경제 분석 모형을 구축하는 노력이 있어 왔으나,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왔다.

❍ 또한 전라북도 경제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으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관련 연구진 이외 다른 수요자들이 활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원 차원에서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진단하며, 중장기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물들을 다시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전라북도에서 정책적 경제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표는 GRDP와 고용률, 고용자 수 등 양적 지표에 속하는 지표로, 이들 지표들은 지역 경제 성장 단계가 성장 초기이거나 고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표들이다.

❍ 전라북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 및 산업 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이들 양적 지표 개선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하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선진국형 발전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라북도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이제는 고성장 단계를 지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과거와 같이 수출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또한 양적 성장에 치우치다 보면 고용의 질이나 소득의 분배와 같은 질적 측면을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과거와 같은 경제 정책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따라서 지역 경제 분석에 있어서 양적 수준의 변화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 ❍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의 역할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영역은 지역 경제의 거시적인 트렌드 분석과 경제 전망을 통한 전라북도 경제· 산업정책의 방향 제시 부분이다.
- ❍ 기존에는 지역통계 TFT를 구성하여 분기마다 지역경제 관련 통계 지표들을 정리하여 경제 동향 분석에 집중해 왔으며, 산발적으로 중요 경제 이슈들에 대해 개인 연구자가 별도로 구축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 ❍ 통계 지표 관리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수행하여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 추진체계가 잘 잡혀 왔으나, TFT로 운영하다 보니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연구원 내부에서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 중요 경제 이슈 분석에 있어서는 개별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의 수준이 일관성을 유지되지 못하였고, 거시 경제 예측 모형을 연구원 차원에서 구축하지 못해 경우에 따라서는 계량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결론을 내리는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 ❍ 또한 경제 지표들의 변화 현황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미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여 전라북도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 ❍ 따라서 본 연구는 전북경제동향분석센서의 기능 수행에 있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초 분석틀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의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 ❍ 첫 번째는 통계청, 한국은행, 무역협회 등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자료 중에서 전라북도 산업, 경제와 관련한 통계 지표를 취합하여 이를 해석하여 전라북도 산업, 경제 현황에 대한 미시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왔던 과거의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통계 지표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전북 경제 동향 해석을 위한 종합지수를 개발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산업, 경제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 두 번째는 과거 전라북도 산업, 경제에 대한 대내외 충격의 효과를 에측함에 있어 연구원 개인별로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분석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책적 대응방향 제시를 적시에 하지 못했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연구원 차원에서 단기, 중장기 경제 예측 모형을 구축하여 경제 정책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록 하고자 한다.
- 세 번째는 공식적으로 통계를 생산하는 도내외 기관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통계를 생산하는 도내 기관들의 통계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통계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관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라북도 전반적인 통계 지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 차원에서의 3개년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번 1차년도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중장기 경제 진단과 경기선행종합지수 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중장기 연구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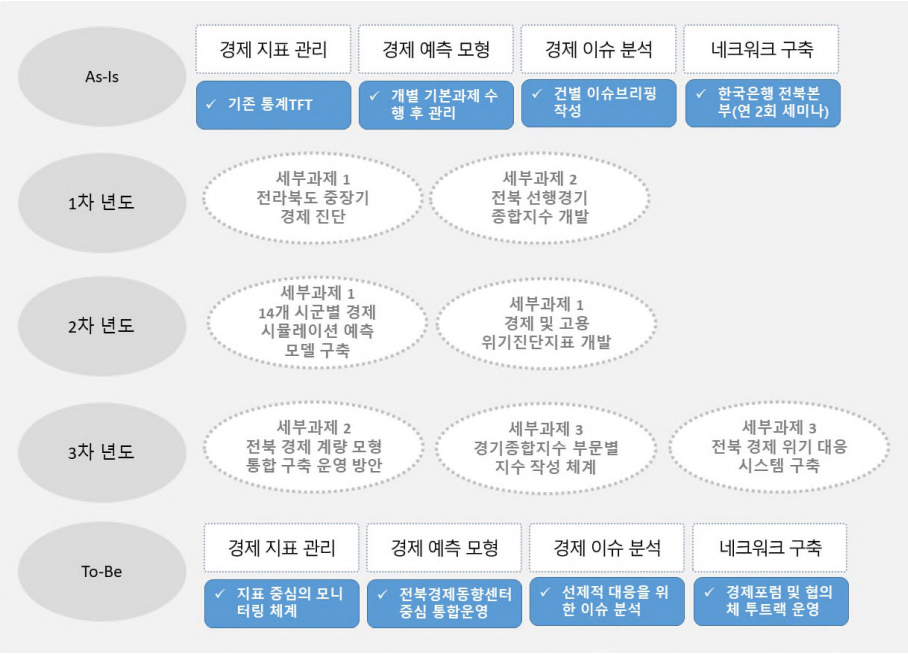
- ❍ 전북 경제동향분석센터 차원에서 전라북도 중장기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3개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 1차년도 연구 과제는 기초 연구 성격으로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산업,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 1차년도 세부과제 1은 전라북도 경제, 산업 관련 통계 자료들을 통해 전라북도 중장기 경제 트렌드를 진단하고 경제 요소별로 지역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중요 산업, 경제 통계 지표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 ❍ 1차년도 세부과제 2는 세부과제 1에서 구축된 통계 자료들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경제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단기적인 경기 변동을 예측할 있는 지표로서 전라북도 경기선행종합지수를 작성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 2차년도 연구 과제는 1차년도 연구 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경제 예측 모델과 고용 위기 진단 지표를 개발하는 확장형 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2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 2차년도 세부과제 1은 지역경제 모형을 구축하는 과제로 전라북도를 한 지역을 둔 단일 경제 모형과 14개 시군으로 나눈 경제 모형을 같이 검토하여 전라북도의 경제 예측과 시군간의 영향 관계 및 경제 효과 전달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 2차년도 세부과제 2는 1차년도 과제의 결과물인 경기선행종합지수를 경제위기진단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기적인 경제 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고용 부문에 대한 선행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 3차년도 연구과제는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종합 연구 과제로 거시적인 지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수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요소별로 진단 및 예측을 수행하고자 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3차년도 세부과제 1은 2차년도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전라북도 단일 모형과 14개 시군 모형을 통합하여 경제 전망 및 이슈 분석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3차년도 세부과제 2는 경기종합지수와 함께 중소기업, 산업별, 소상공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수를 작성하고자 한다.

❍ 3차년도 세부과제 3은 연구원 차원에서 개발한 다양한 지수와 예측 모형이 도정에 참고가 되고 수요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무형 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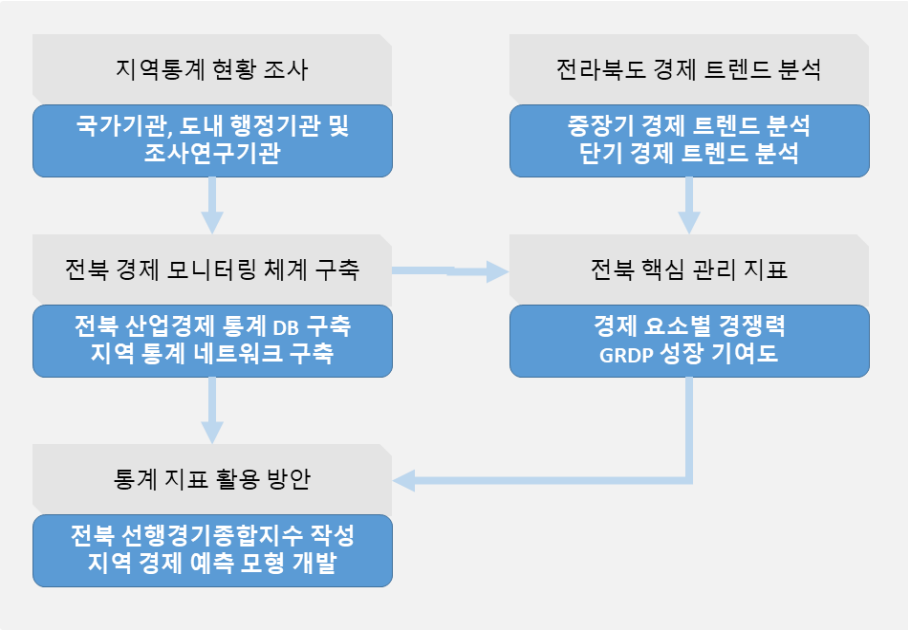


〈그림 1-2〉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 로드맵

2. 1차년도 과제의 주요 연구 내용

1) 전북 중장기 경제 진단 및 부문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전라북도 산업, 경제에 대한 분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통해 전라북도 경제 진단을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계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라북도 GRDP를 구성하는 통계 지표를 토대로 지역 산업, 경제 트렌드를 분석하여 전라북도 경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찾아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 ❍ 산업 경제 트렌드 분석은 2000년 이후의 중장기 트렌드 분석과 2020년 단기 트렌드 분석을 하였으며, 중장기 분석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제 요소와 단기 트렌드 분석에 필요한 경제 요소가 각각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 ❍ 그 다음으로 경제 요소별로 지역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통계 관리 및 분석에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통계 자료 영역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 ❍ 영향력 분석은 산업 측면과 고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요소가 지역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여 추가적인 통계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 ❍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경제 통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통계 자료의 한계점을 찾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를 거쳤고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전라북도 경기선행종합지수 개발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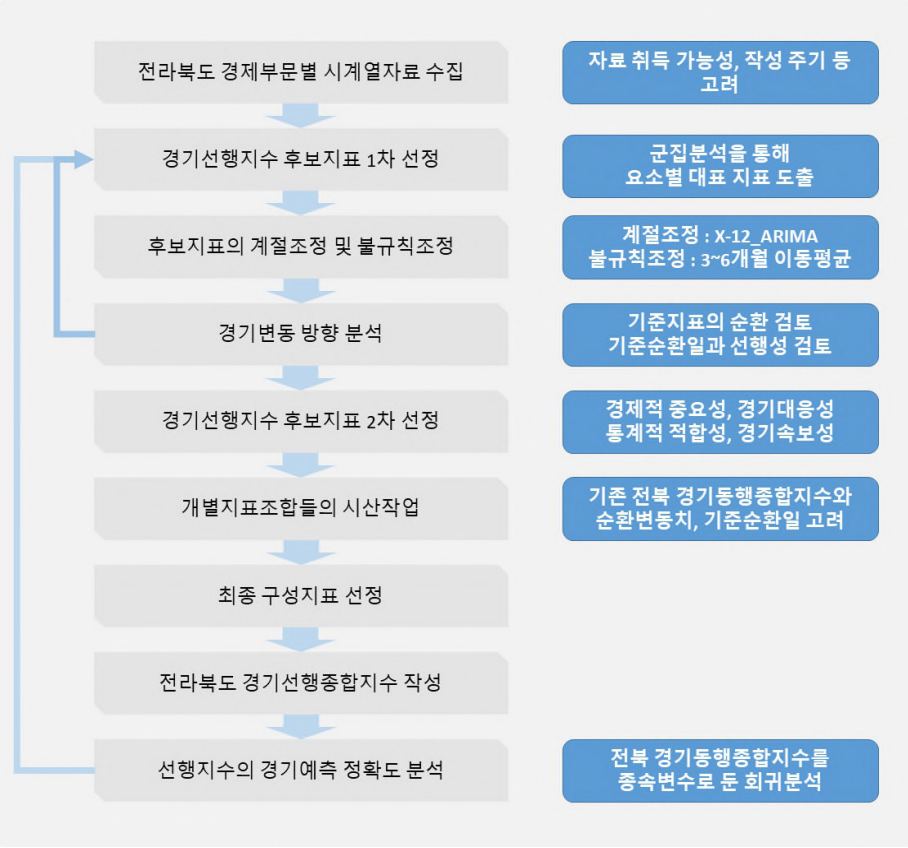


〈그림 1-3〉 세부과제 1 추진 체계

2) 전라북도 경기선행종합지수 작성

- ❍ 전라북도 경기선행종합지수 작성을 위해 우선 타 지역 경기선행종합지수 개발 사례를 검토하였고 각각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경기선행종합지수의 구성 지표들을 선정하는 과정 및 논리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 추진 과정에 반영하였다.
- ❍ 전라북도 경기선행종합지수 작성을 위한 통계 지표들을 정리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요소별 대표 지표를 도출하였다.
- ❍ 1차 선정된 지표들 중에서 계절조정 및 불규칙조정 과정을 거쳐 전북 경제와 선행성이 강한 지표를 구분하여 2차 선정하였고 개별지표들의 조합별로 기존 전북 경기동행종합지수와의 순환변동치, 기준순환일을 고려하여 시산작업을 하여 최종 구성지표를 선정하여 전라북도 경기선행종합지수를 작성하였다[1].

❍ 마지막으로 선행지수의 경기예측 정확도 분석은 전북 경기동행종합지수를 종속변수로 둔 회귀분석을 하여 정합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반복 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경기선행종합지수를 제시하였다.



〈그림 1-4〉 세부과제 2 추진 체계

1) 이후 작업은 통계청의 KOSTAT-C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현재, KOSTAT-CIS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관계로 보고서 작성이 미뤄진 상황으로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 장

전라북도 경제 트렌드

Jeonbuk Institute

제1절 중장기 경제 트렌드
제2절 단기 트렌드
제3절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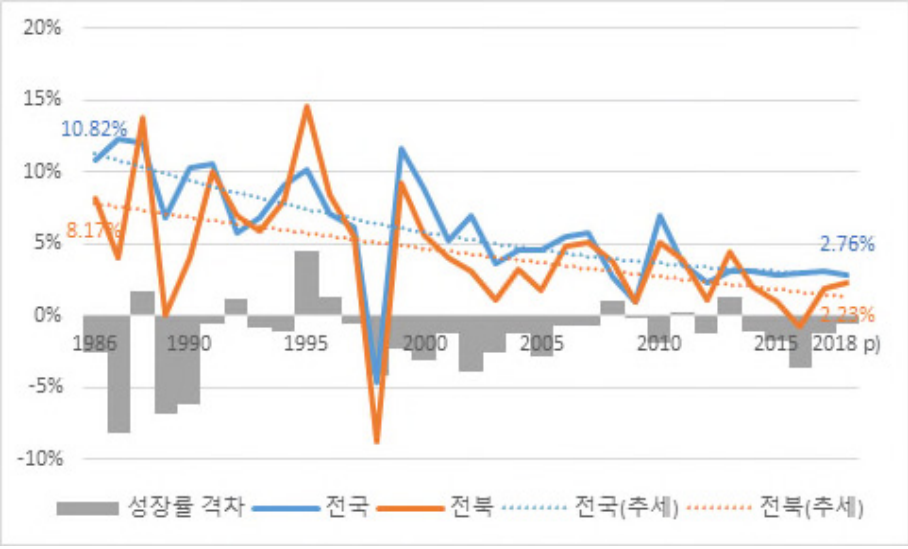
제2장 전라북도 경제 트렌드

제1절 중장기 경제 트렌드

1. 개요

❍ 전라북도 GRDP는 당해년가격 기준으로 1985년 3.46조원에서 2018년 50.97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전국 대비 비중을 따지면 전국 GRDP 대비 전북 GRDP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3.77%에서 2018년 2.68%로 줄어들어 지역의 경제적 위상이 갈수록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라북도 GRDP 성장률은 1986년 8.17%에서 2018년 2.23%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 GRDP 성장률 역시 1986년 10.82%에서 2018년 2.76%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인 흐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그림 2-1〉 전국 및 전북 GRDP 성장률 추이

❍ 전국 GRDP 성장률과의 격차를 보면, 특정 시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국 대비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1995년과 1996년은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의 가동이 시작되면서 GRDP 성장이 크게 발생하여 전라북도 입장에서 이 시점이 경제 부흥기라고 볼 수 있다.

❍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은 1970년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시행되어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반면, 전라북도는 1980년대까지 중앙의 거시적·중앙적 집중투자에서 외면받아 지역 낙후성이 심화되었다.

❍ 1990년대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정/새만금개발 착수 및 자동차산업 생산시설이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2000년대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으로 지역전략산업 지정 및 육성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대기업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 혁신도시 개발 시작 등으로 다양한 전략산업군을 발굴하여 전국 평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 하지만 2010년대에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기존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업 중단이 이루어지면서 성장기반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현대중공업, GM의 조업 중단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게 되었다.

❍ 2010년대 후반부의 경제 침체는 기업의 생산 규모 축소로 인해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지역 소득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소비 능력이 위축되어 산업의 추가 투자 및 생산을 유발하지 못하게 되는 연쇄적인 효과가 발생하여 전라북도 경제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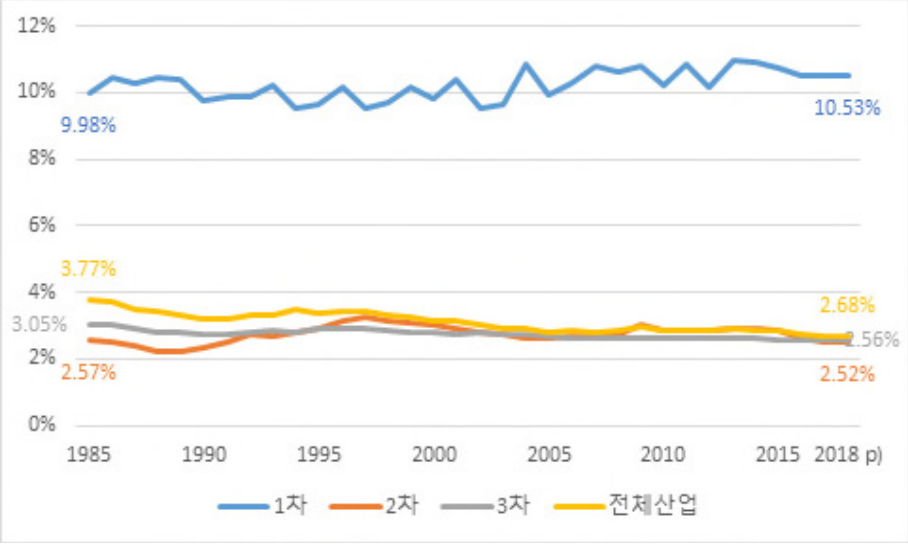
2. 생산 측면에서의 GRDP 트렌드

1) 산업별 생산

❍ 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전라북도의 1차 산업이 전국 1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10.53%로 전산업 기준 2.68%보다 매우 큰 수치로 농업의 위상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에 반해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각각 2.52%, 2.56%로 전라북도의 전국 대비 경제 규모 비중인 2.68%보다 낮아 아직까지 농업 이외의 산업 위상이 타 지역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시계열 추이에서도 1985년과 비교하면 각각 0.05%p, 0.49%p 낮아져 산업적인 소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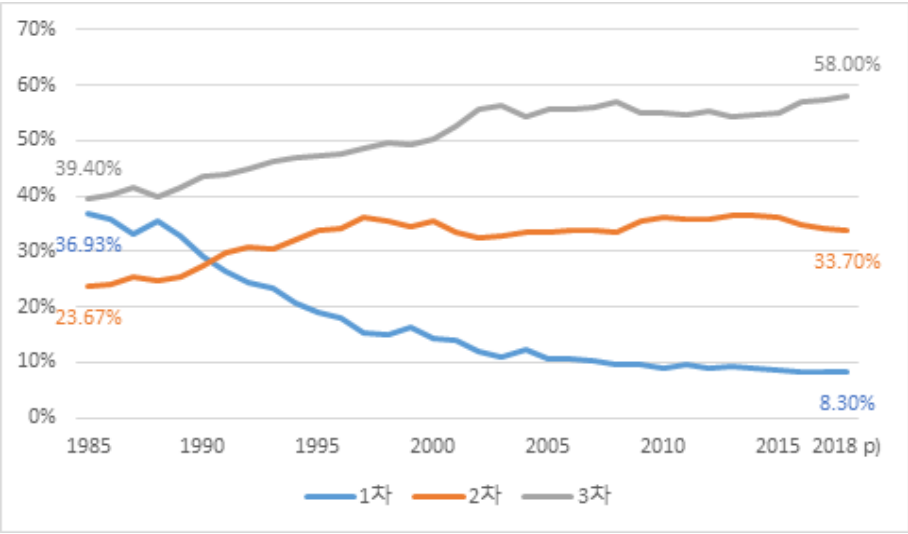
※ 1985년과 비교시, 각각 0.05%p, 0.49%p 낮아짐



〈그림 2-2〉 산업별 전국 대비 전북의 경제 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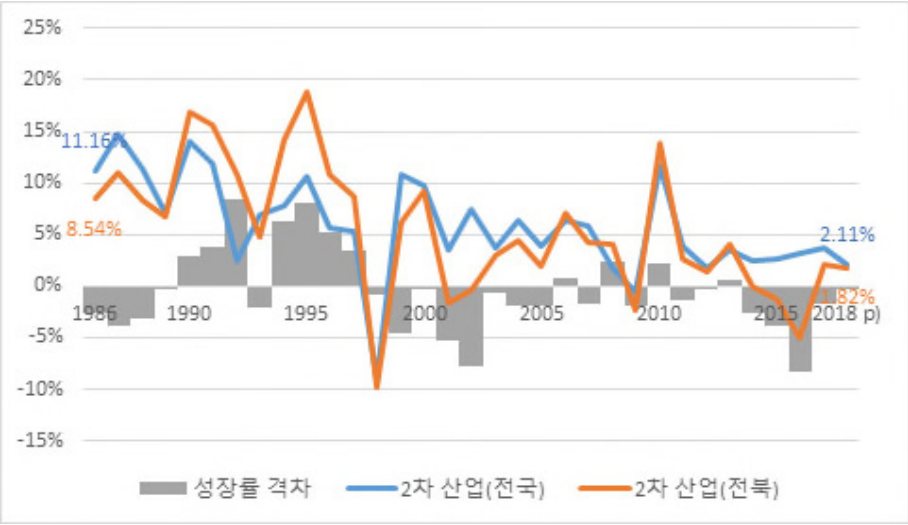
❍ 전라북도 경제 규모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차 산업은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반면, 2차 산업은 정체, 3차 산업은 확대 추세에 있어 전국과의 비교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차 및 3차 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경제 규모 대비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해당 산업이 국가 차원의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라북도 경제가 성숙 단계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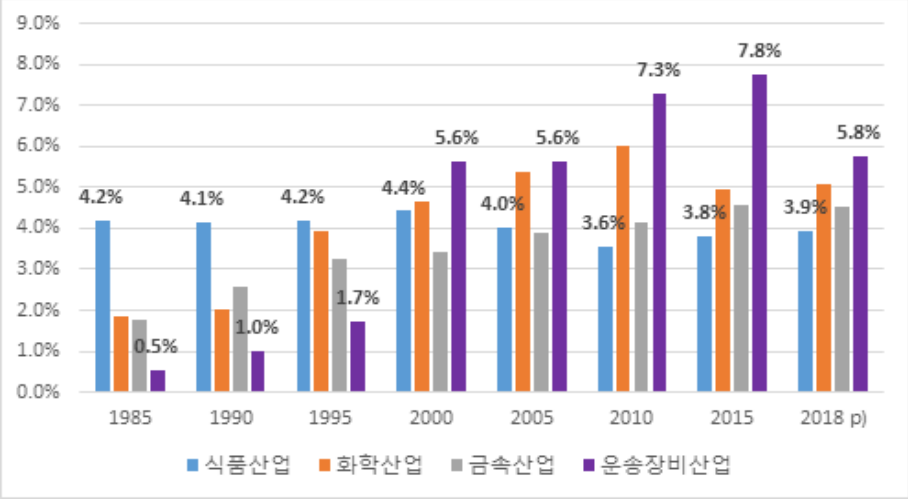
〈그림 2-3〉 전라북도 산업 비중

❍ 2차 산업의 성장률 추세를 보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990년대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 채 2014년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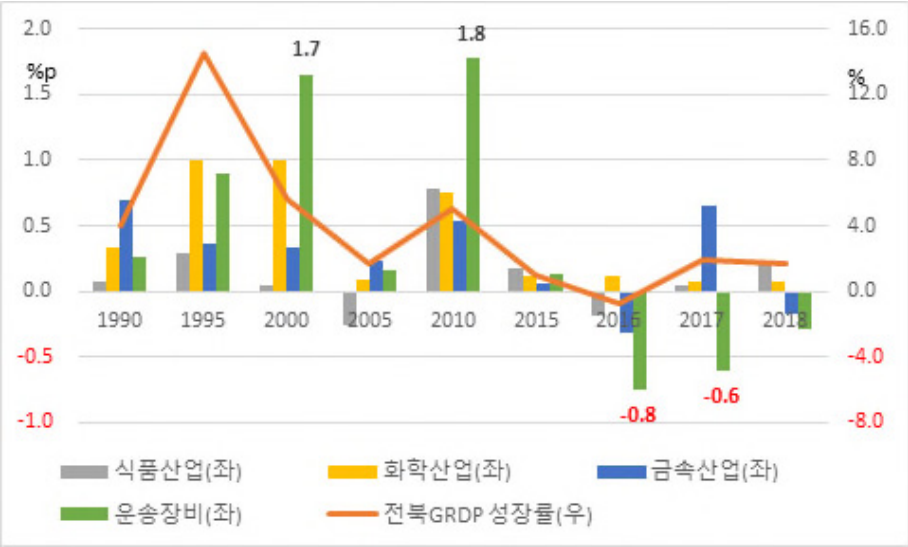


〈그림 2-4〉 2차 산업 성장률 추이

❍ 2차 산업 중 주요 산업들의 비중을 보면, 2000년 이전에는 식품 산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운송장비산업 즉, 자동차산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2015년 이후 현대자동차 상용차 생산 감소, 군산 GM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 2-5〉 전라북도 경제 내 주요 제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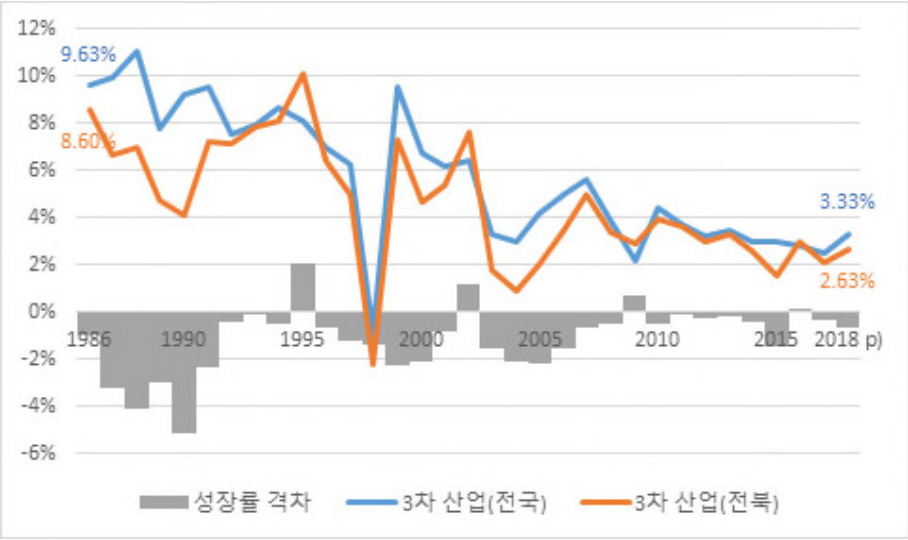


〈그림 2-6〉 주요 제조업별 전북 GRDP 성장 기여도

❍ 이러한 경향은 GRDP 성장 기여도 분석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전라북도 GRDP 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운송장비 산업이었으나, 2015년 이후에는 GR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산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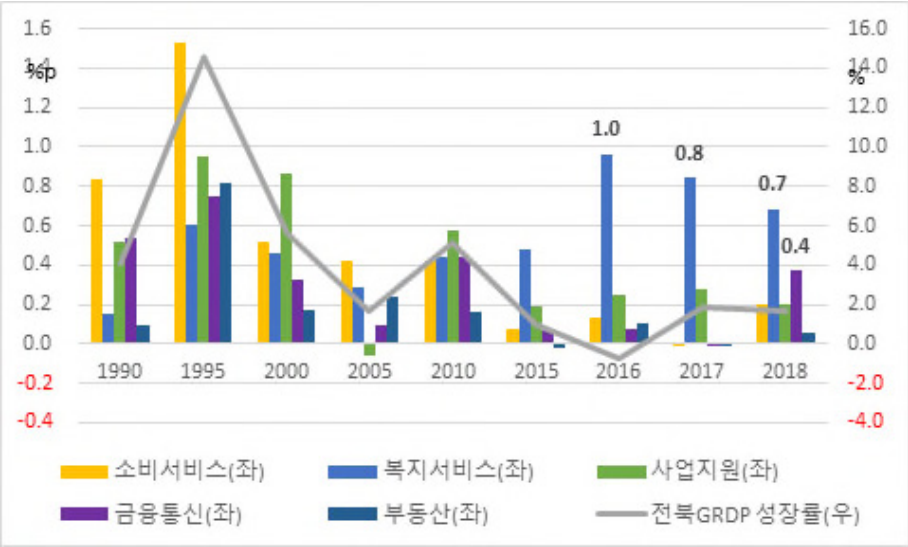
❍ 3차 산업의 성장률 추세는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3차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높았던 시점은 1995년과 2002년으로 1995년은 현대자동차 및 GM대우 공장 유치 후 관련 서비스업의 성장, 2002년은 월드컵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된다



〈그림 2-7〉 3차 산업 성장률 추이

❍ 전북 GRDP 성장 기여도를 보면,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동안 사업지원서비스업이 GRDP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기간동안 자동차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이 동반 성장하면서 전라북도 경제 성장을 기여했다.

❍ 하지만, 제조업이 침체하게 되면서 사업지원서비스 역시 동반 침체하게 되었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림 2-8〉 주요 서비스업별 전북 GRDP 성장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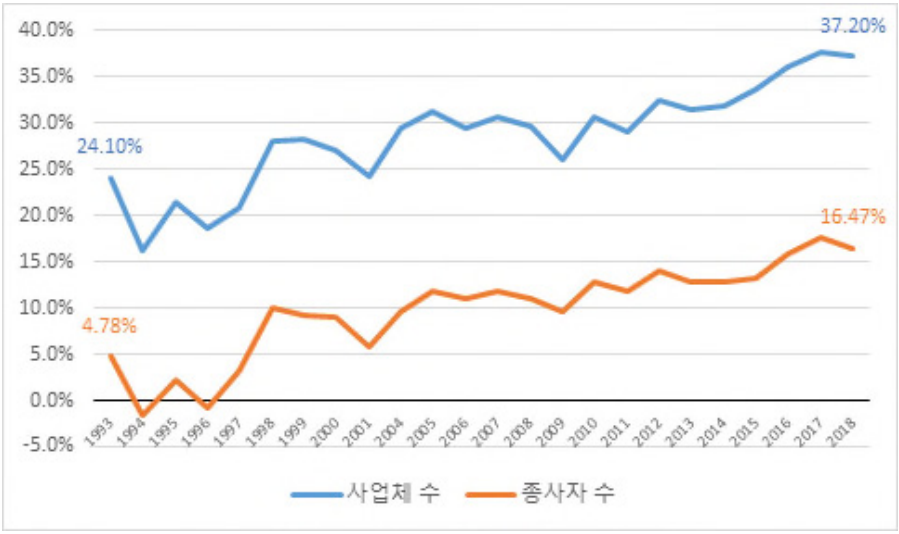
2)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 ❍ 2018년 기준 전북의 사업체 수는 151,011개로 1993년 기준 94,295개와 비교하여 기간 동안 60.1%%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수는 1993년 423,090명에서 2018년 694,66명으로 총 64.2% 증가하였다.
- ❍ 동기간 전국 사업체 수는 78.1%, 종사자 수는 81.6%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상대적으로 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면 사업체 수는 1993년 4.09%에서 2018년 3.68%로 감소하였고, 종사자 수 역시 3.46%에서 3.12%로 감소하여 전국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전북의 경제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 2.68%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즉 이 말은 전라북도의 경제 요소 생산성이 낮아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 비해 GRDP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다른 관점에서 고려하면, 사업체 수가 지역 경제 규모에 비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체가 많고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대기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종사자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산업 비중이 크다고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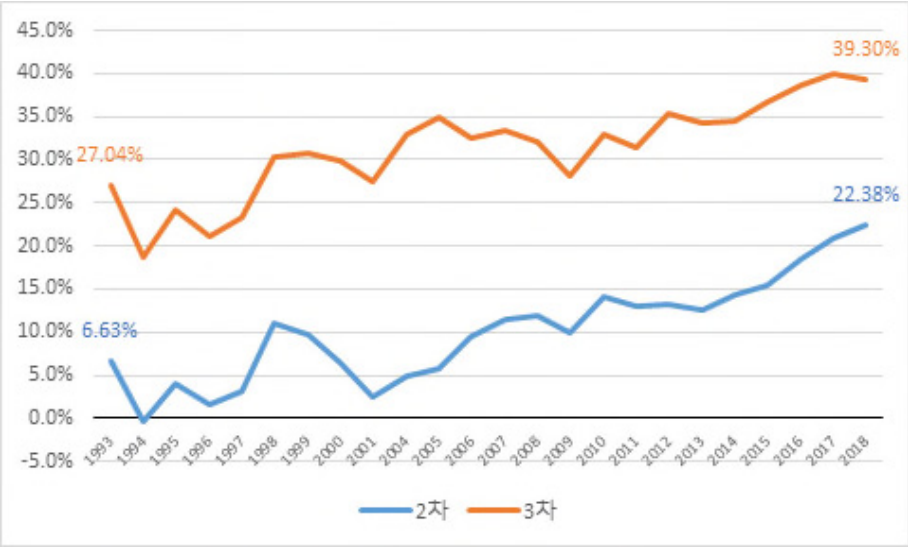
❍ 아래의 그림을 보면, 전라북도 GRDP 점유율에 비해 사업체 및 종사자 점유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의 요소 생산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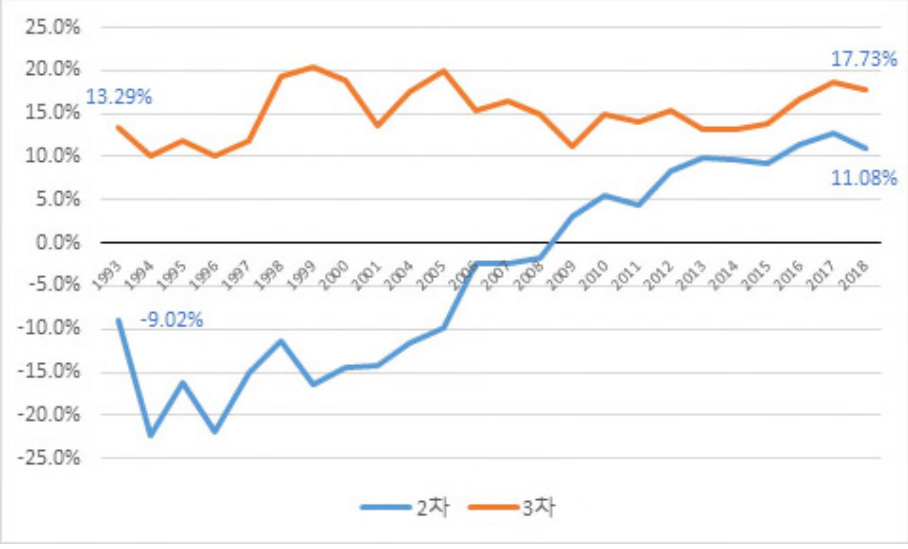
주 : 그래프의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전북의 사업체수/전국의 사업체 수)/(전북의 GRDP/전국의 GRDP)로 지역의 경제 규모에 맞춰 평균적으로 있어야 할 사업체 혹은 종사자 수에 비해 어느 정도 더 있는가를 의미함

〈그림 2-9〉 지역 경제 규모 대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 산업별로 구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면, 3차 산업이 지역 경제 규모 수준에 비해 사업체와 종사자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산업은 2009년을 기점으로 경제 규모 대비 종사자 수가 많아졌다.



〈그림 2-10〉 지역 경제 규모 대비 산업별 사업체 비중



〈그림 2-11〉 지역 경제 규모 대비 산업별 종사자 비중

3. 분배 측면에서의 GRDP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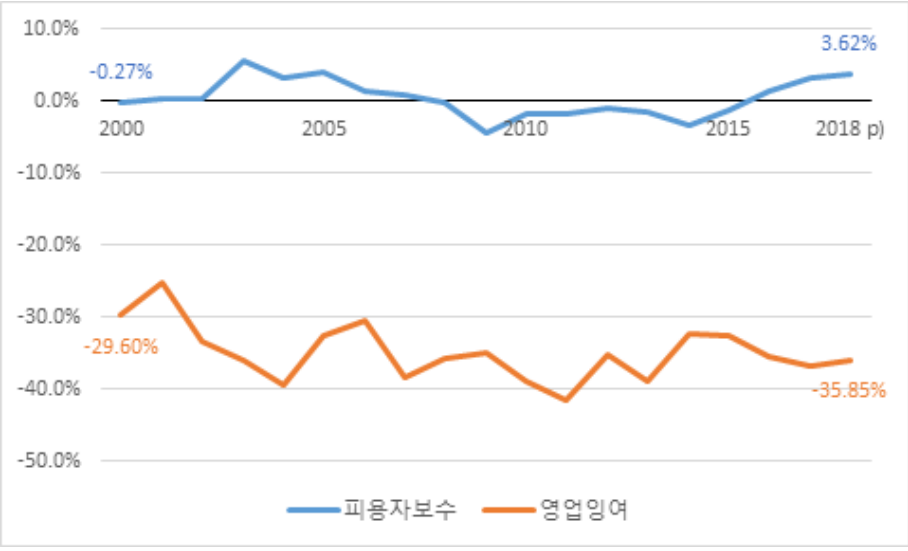
1) 지역내 소득 분배

❍ 2018년 기준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중에서 피용자 보수로 24.1조원, 영업잉여로 8.4조원이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과 비교하여 각각 178.4%, 86.9% 증가한 수치이다.

❍ 동기간동안 전국은 각각 217.0%, 142.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지역으로의 분배 소득 증가율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으로 전환되는 규모를 지역 경제 규모에 대비하여 환산할 경우, 피용자 보수는 지역 경제 수준에 거의 비슷한 수준인 반면, 영업 잉여는 경제 규모에 대응한 적정 소득 규모의 64.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영업 잉여가 지역 경제 규모에 대응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향후 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나 사업 확장, 신규 인력 채용 등과 같은 경영 전략을 펴치기 어려우며, 기업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그림 2-12〉 지역 경제 규모 대비 산업별 종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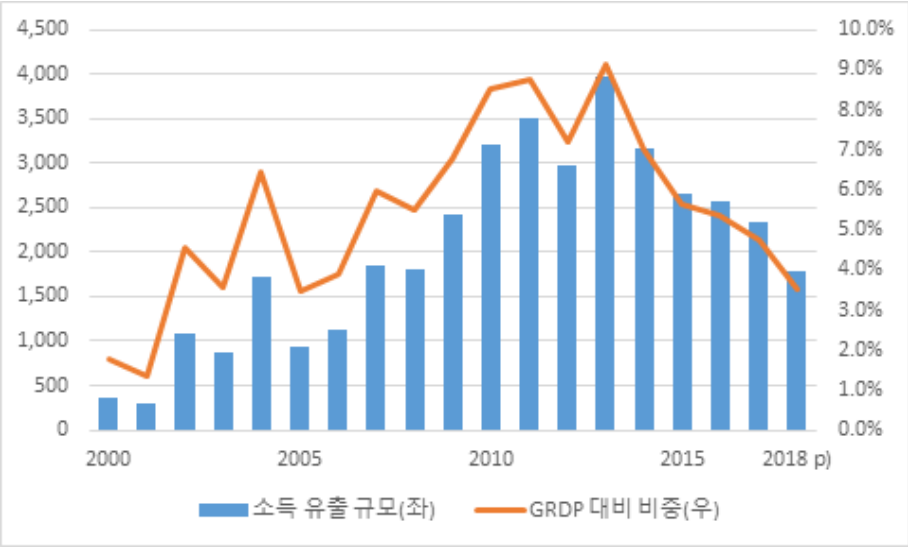
❍ 지금까지 전라북도 내에서 기업의 투자는 대부분 타 지역에 있던 기업의 신규 투자였으며, 지역 업체의 재투자는 상대적으로 작았었는데, 이는 지역 내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낮아 신규 투자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기업의 신규 고용 및 투자를 유도하기에 앞서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제고하여 신규 투자 여력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역외 소득 유출

❍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100% 지역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득의 일부는 타 지역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전라북도는 소득의 역외 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2013년까지 유출 규모가 늘어났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의 유출 규모는 2018년 기준 전라북도 GRDP의 3.51% 수준으로 순유출 발생 지역 중에서 유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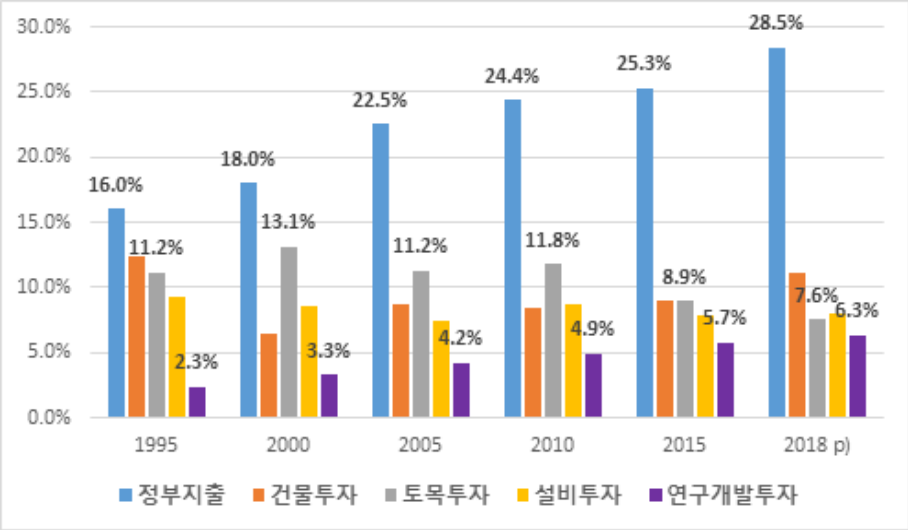
〈그림 2-13〉 전라북도 역외 소득 유출 추이

4. 지출 측면 GRDP 트렌드

❍ 지출 측면의 GRDP는 수요 관점에서 관련 지표가 상승 추세에 있을 경우, 수요에 대응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관리가 가능한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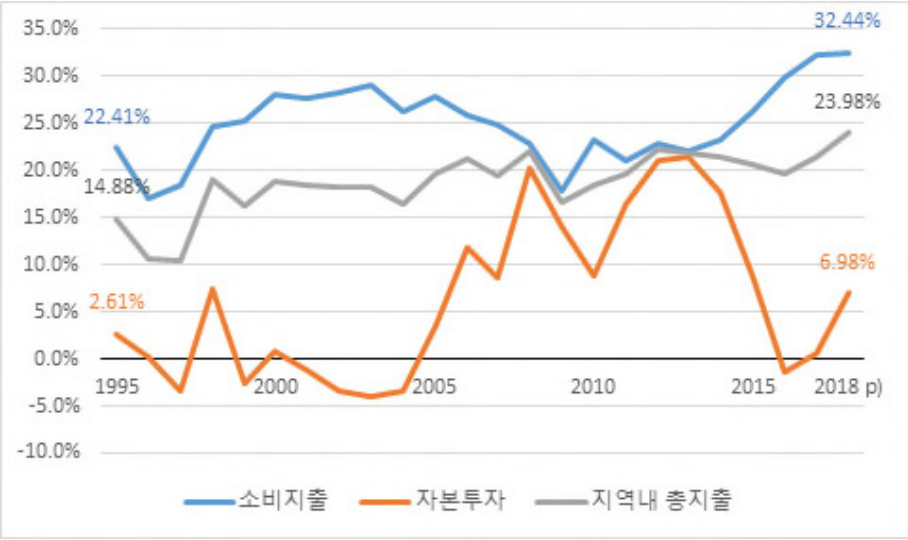
❍ 예를 들어 정부 지출 규모를 늘릴 경우 이에 대응한 산업 생산이 증가하며, 특히 대형 재정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산업 생산이 발생하여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 지출 및 건설 투자를 늘려 경제 규모를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전라북도의 지출 부문은 민간 소비 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정부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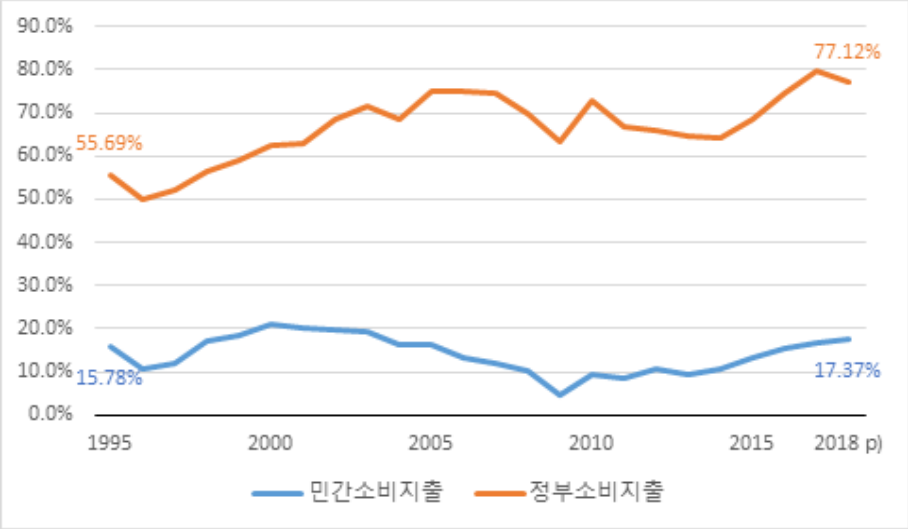
〈그림 2-14〉 지출 부문별 GRDP 대비 규모 비중

❍ 전라북도는 소비 지출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GRDP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자본투자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높은 수준으로 지출이 발생하여 전북 GRDP 성장에 기여해 왔다.



〈그림 2-15〉 경제 규모 대비 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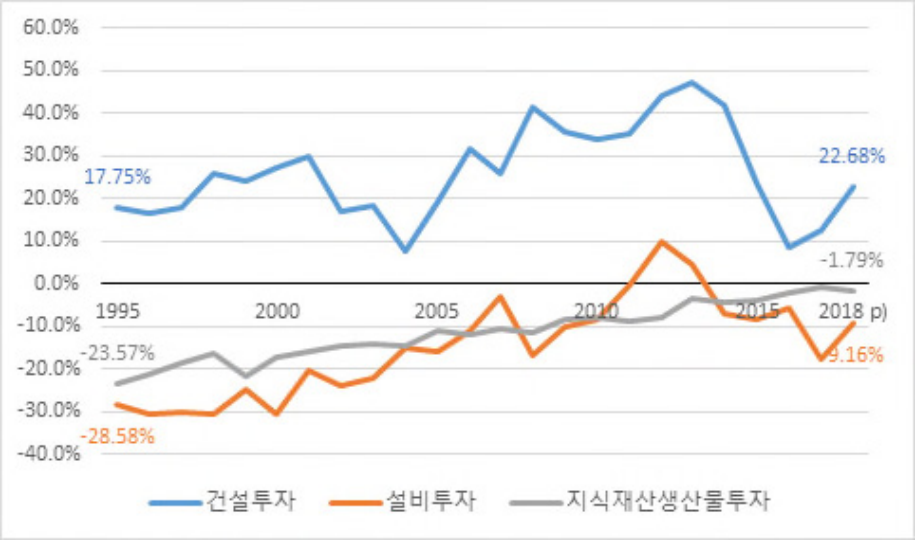
○ 소비지출은 민간소비지출과 정부소비지출로 구분되는데, 단순 규모 측면에서 2018년 기준으로 민간소비지출이 28.5조원, 정부소비지출이 14.5조원으로 민간소비지출이 지금까지 더 많이 발생해 왔다.



〈그림 2-16〉 경제 규모 대비 주체별 소비지출 규모

○ 규모는 민간소비지출이 더 컸지만, 전라북도의 경제 규모와 전국 평균 수준을 고려하였을 경우, 정부소비지출 비율이 매우 큰 지역으로 전북 GRDP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 자본투자는 건설투자,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로 구분되는데, 규모 측면에서 건설투자는 9.5조원, 설비투자는 4.1조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2조원이 지출되어 왔고 1995년 이후부터 건설투자 비중이 높았다. 이는 새만금개발 및 대규모 SOC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림 2-17〉 경제 규모 대비 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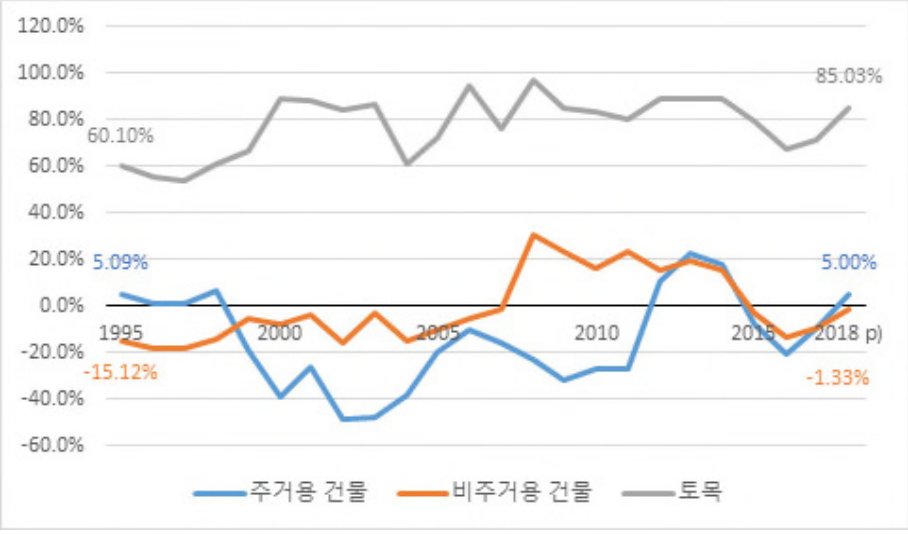
○ 전북의 경제 규모와 전국 평균 수준을 고려하였을 경우, 건설투자는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규모에 비해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GRDP 성장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이에 반해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지역 경제 규모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건설투자의 경우, 일회성 경기 부양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GRDP 성장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

자는 산업의 생산 증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규모에 비해 작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과 토목으로 구분되는데, 토목은 지속적으로 전북 GRDP 성장에 기여한 반면, 산업 투자형인 비주거용 건물(공장, 오피스 등)에 대한 투자는 2008년~2014년에만 전북 GRDP 성장에 기여해 왔다.
- ❍ 주거용 건물 및 토목 투자는 단발성 투자로 타 산업의 생산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 투자는 공장과 같은 산업의 고정자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타 산업의 생산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비 투자와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지표이다.
- ❍ 그런 측면에서 새만금개발 및 대형 교통시설 사업 등의 대형 토목 사업으로 단기 부양 효과를 얻고 있으나, 설비투자 및 비주거용 건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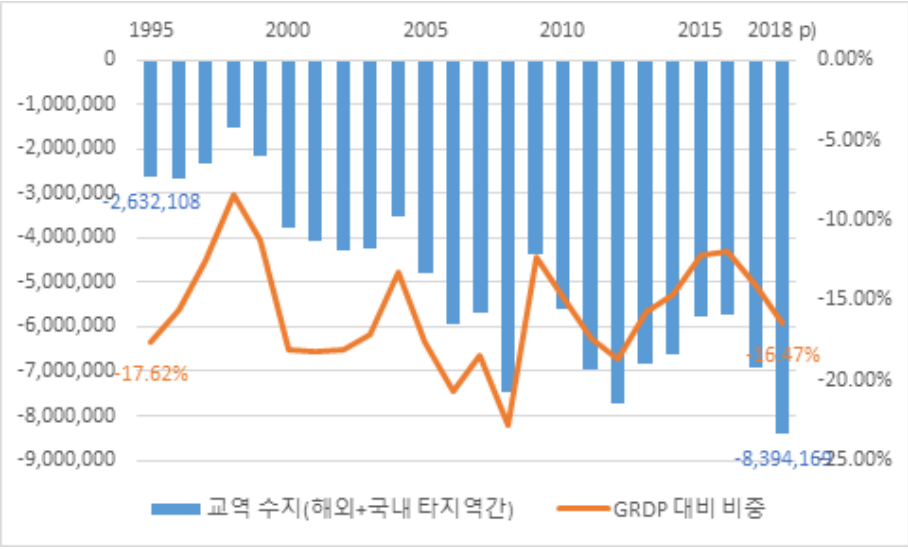
〈그림 2-18〉 경제 규모 대비 건설 투자 규모

❍ 전라북도의 지출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생산 측면의 GRDP 규모에 비해 24% 정도 높은 것으로 계산되어 GRDP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 이유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 산업이 공급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및 타 지역의 생산물들이 들어와 공급 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및 국내 타지역간 교역 수지를 보면, 계속 적자 수지였으며, 2018년에 8.4조원의 적자로 이는 전북 GRDP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 해외 교역 수지의 경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타지역 생산물의 이입이 지역 GRDP 성장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19〉 전라북도 교역 수지

❍ 지역 내 수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그 만큼 받쳐주지 못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라북도 GRDP 성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었다.

❍ GRDP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수요를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생산물의 품질 제고와 전후방산업 연계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자생적인 경제 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단기 트렌드

1. 생산 측면

1) 제조업

❍ 2020년 전라북도 제조업 생산은 식료품 분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분야의 생산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상용차는 주요 수출지역의 판매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화학, 기계, 음식료 등이 수요회복 및 일시적 공급 충격의 해소로 소폭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식료품 분야는 1/4분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육계가 증가하였으나, 주류 및 과자류 등이 감소하면서 생산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주류 업체인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 수요 감소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1~2월)에는 주 평균 60만 상자 생산에서 3월 이후에는 40만 상자 내외로 생산이 감소하였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내에서의 주류 소비 증가로 인해 캔 등의 가정용 제품 판매가 크게 신장되어 전체 생산량의 하락폭은 다소 완화되었다. 육계의 경우, 여름철 전북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인 하림으로 납품을 해온 양계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3/4분기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 화학제품 분야는 1/4분기에 OCI 군산공장이 폴리실리콘의 글로벌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등도 가전제품 및 의류 등의 전방산업의 생산 부진으로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다만 3/4분기에 휴비스가 울산공장 단섬유 생산 설비를 전주공장으로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생산량이 2/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생산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속 분야는 전방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생산 부진과 더불어 현대자동차가 자사 계열사의 제품을 우선 납품받는 수직계열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역내 주요 업체의 수주가 감사호면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금속 분야 업체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경우 6월에 탄력감산에 들어가 생산들 중단하였다가 8월에 재가동하게 되면서 3/4분기 생산 감소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 비금속 분야는 대표 업체인 효성첨단소재가 탄소섬유 생산설비 1차 증설을 2월에 완료한 이후 현재까지 연 4,000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금속의 다른 분야인 유리 부문에서 자동차 생산 감소 및 업소용 주류 유리병 생산 둔화로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생산이 감소하게 되었다.

❍ 기계 분야는 1/4분기까지는 건설기계 및 농기계의 수출 대상국을 중국 중심에서 탈피하여 선진국 중심으로 다변화를 꾀하면서 인해 수출 호조로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 코로나19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설 및 농기계 수요 급감으로 수출 부진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3/4분기에 농기계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 및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생산량이 개선되고 있다.

❍ 자동차 분야는 GM 군산 공장 폐쇄 이후 1,2차 납품 업체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상용차)이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남게 된 가운데, 1분기에 코로나19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생산 감소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확산되었던 1분기에 중국산 부품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2월달에 2주 가량 상용차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트럭의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재고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일수를 축소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국내 장기화로 수출 및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3분기까지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원버스 및 관광버스 등의 수요가 시차를 두고 감소하면서 생산량 감소 폭이 더욱 심화되었다.

〈표 2-1〉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

	2019				2020		
	1Q	2Q	3Q	4Q	1Q	2Q	3Q
제조업	87.3	93.0	86.2	90.4	84.3	82.5	81.6
	(△7.8)	(△6.7)	(△6.1)	(△6.3)	(△3.4)	(△11.3)	(△5.3)
- 식료품	124.8	29.5	129.0	132.5	125.9	129.7	130.4
	(4.6)	(5.2)	(5.3)	(4.7)	(0.9)	(0.2)	(1.1)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93.6	95.5	86.4	96.0	89.9	69.8	81.5
	(△14.8)	(△14.7)	(△8.6)	(△5.3)	(△4.0)	(△26.9)	(△5.7)
- 비금속 광물제품	85.3	113.7	101.5	114.7	77.8	107.0	89.9
	(△8.9)	(△4.4)	(1.8)	(△2.3)	(△8.8)	(△5.9)	(△11.4)
- 1차 금속	102.5	93.3	89.4	88.9	99.2	79.0	68.3
	(△4.3)	(△17.6)	(△14.3)	(△19.0)	(△3.2)	(△15.3)	(△23.6)
- 기타 기계 및 장비	95.4	102.8	91.9	85.5	100.6	89.0	95.4
	(△19.2)	(△8.2)	(△9.3)	(△10.3)	(5.5)	(△13.4)	(3.8)
- 자동차/트레일러	63.4	70.5	58.8	63.3	51.4	58.8	53.1
	(△7.0)	(△6.0)	(△11.6)	(△13.3)	(△18.9)	(△16.6)	(△9.7)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을 의미

2) 서비스업

○ 최근 5년동안 전라북도 GRDP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도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나,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타격을 많이 받은 분야는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지원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이다.

○ 도소매업은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방문객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온라인 쇼핑 분야의 매출 등으로 대체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관광산업에 해당하는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의 경우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 등의 방문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하여 10% 이상 생산이 감소하였다.

〈표 2-2〉 전북지역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2019				2020		
	1Q	2Q	3Q	4Q	1Q	2Q	3Q
서비스업	107.0	112.3	111.8	115.2	107.8	112.2	112.4
	(1.0)	(2.3)	(2.8)	(3.3)	(0.7)	(△0.1)	(0.5)
- 도소매업	100.5	105.8	103.2	107.2	99.0	104.9	102.7
	(△1.4)	(△1.1)	(△1.8)	(△0.4)	(△1.5)	(△0.9)	(△0.5)
- 운수창고업	105.1	112.6	109.5	110.0	91.5	99.5	99.1
	(0.7)	(3.0)	(2.8)	(3.5)	(△12.9)	(△11.6)	(△9.5)
- 숙박음식점업	91.7	95.4	95.8	101.1	75.1	79.8	83.2
	(△0.5)	(0.7)	(△3.0)	(△0.6)	(△18.1)	(△16.4)	(△13.2)
- 금융보험업	117.0	120.6	122.2	125.1	131.7	138.8	144.8
	(1.7)	(2.5)	(6.9)	(7.0)	(12.6)	(15.1)	(18.5)
- 부동산업	125.4	123.1	126.0	137.4	149.9	142.0	144.8
	(2.9)	(3.8)	(8.6)	(11.8)	(19.5)	(15.4)	(14.9)
- 전문과학및기술	90.8	121.1	96.8	115.5	97.2	123.2	100.4
	(0.0)	(8.5)	(9.4)	(5.4)	(7.0)	(1.7)	(3.7)
- 사업지원및임대	105.1	106.5	111.0	123.4	104.6	99.5	103.9
	(0.7)	(0.8)	(3.3)	(9.4)	(△0.5)	(△6.6)	(△6.4)
- 교육서비스업	105.0	104.6	104.2	105.1	103.3	102.0	102.0
	(0.0)	(△1.2)	(△0.7)	(△0.5)	(△1.6)	(△2.5)	(△2.1)
- 보건및사회복지	126.1	126.1	133.9	130.4	132.8	132.9	137.6
	(7.0)	(8.4)	(7.6)	(6.9)	(5.3)	(5.4)	(2.8)
- 예술스포츠여가	96.7	138.8	113.3	133.4	103.2	113.3	108.3
	(0.7)	(13.3)	(0.4)	(4.8)	(6.7)	(△18.4)	(△4.4)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을 의미

○ 금융보험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대출과 지역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증가로 인한 대출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하여 큰 폭으로 생산이 늘어났다.

○ 부동산업은 2019년 4/4분기부터 전주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생산이 늘어났다.

○ 교육서비스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되면서 피해를 입게 된 업종으로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역 내 학원을 대상으로 휴원을 권고하고 있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소비 측면

1) 전북지역 소비경기지수

❍ 2020년 전북지역 소비경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와 재화 부문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다. 전북지역은 3/4분기까지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2/4분기에는 소폭 소비경기가 좋아졌으나, 4/4분기에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당분간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비스 소비 부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확산 등의 영향으로 외식 및 여가 등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다만, 2/4분기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및 개학 등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일부 회복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다.

❍ 재화 소비 부문은 서비스 소비 부문과 마찬가지로 2/4분기에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5%p 한시 인하한 정책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내구재 소비 증가가 영향을 주었다.

2) 가계소비지출, 소매판매액지수, 소비심리, 카드실적

❍ 전북지역 가계소비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8년에 전년 대비 3.66%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국내 소비지출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생산 감소에 따라 지역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상대적으로 소비지출 증가율이 저조했으나, 2018년 전북지역의 경기 침체의 진원지였던 군산시를 대상으로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적 지원금이 투입되면서 가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 2018년 가계소비지출 증가는 통신부문을 제외하고 거의 전 항목에서 지출 규모가 늘어났으며, 생필품보다는 내구재 및 준내구재의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표 2-3〉 전북지역 가계소비지출 추이(전년 대비 변화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가계소비지출		2.34%	3.03%	1.95%	2.75%	2.94%	1.42%	1.80%	3.66%
국내소비지출		2.79%	2.97%	1.88%	2.86%	2.27%	1.49%	0.64%	3.87%
지출항목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1.35%	-0.02%	1.41%	1.64%	-0.14%	1.69%	0.54%	2.38%
	주류 및 담배	-1.80%	-4.55%	-1.69%	0.68%	-18.63%	7.69%	-1.68%	0.48%
	의류 및 신발	4.31%	2.55%	8.31%	3.05%	-0.82%	1.90%	0.08%	8.84%
	임료 및 수도광열	1.20%	0.66%	0.93%	0.93%	3.85%	2.82%	2.10%	3.08%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4.85%	1.18%	5.21%	4.98%	3.77%	0.11%	3.78%	0.71%
	의료보건	1.58%	7.92%	4.99%	7.73%	6.73%	3.86%	2.56%	5.39%
	교통	3.64%	0.26%	1.52%	3.35%	7.32%	3.81%	-1.68%	6.46%
	통신	8.09%	3.37%	-3.01%	-3.17%	0.36%	-0.54%	3.47%	-2.68%
	오락문화	5.43%	13.19%	6.78%	6.17%	3.82%	3.30%	1.78%	5.18%
	교육	-0.77%	-6.66%	-1.86%	-2.67%	8.80%	-13.99%	-0.05%	0.21%
	음식숙박	3.38%	4.32%	4.27%	4.44%	-0.44%	4.30%	2.07%	1.73%
	기타	3.34%	7.76%	-1.67%	4.30%	-1.08%	0.45%	-1.88%	5.27%
지출유형	내구재	11.94%	3.49%	-0.95%	6.02%	9.79%	2.32%	0.55%	6.55%
	준내구재	4.10%	3.37%	7.49%	3.34%	-2.04%	3.04%	0.86%	9.83%
	비내구재	1.52%	1.80%	1.59%	1.14%	0.29%	2.70%	0.75%	3.15%
	서비스	1.49%	3.34%	1.63%	2.98%	2.54%	0.55%	0.57%	2.60%

❍ 2018년 이후 소비 현황은 소매판매액지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전체 소매판매액지수는 3/4분기와 4/4분기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라북도는 지역에 비해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강해 입점이 힘든 구조로 대형마트의 소매판매액지수가 다른 유형의 소매점에 비해 낮아 왔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밀집지역 방문을 꺼리게 되면서 더욱더 편의점이나 소매점 이용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표 2-4〉 전북지역 소매판매액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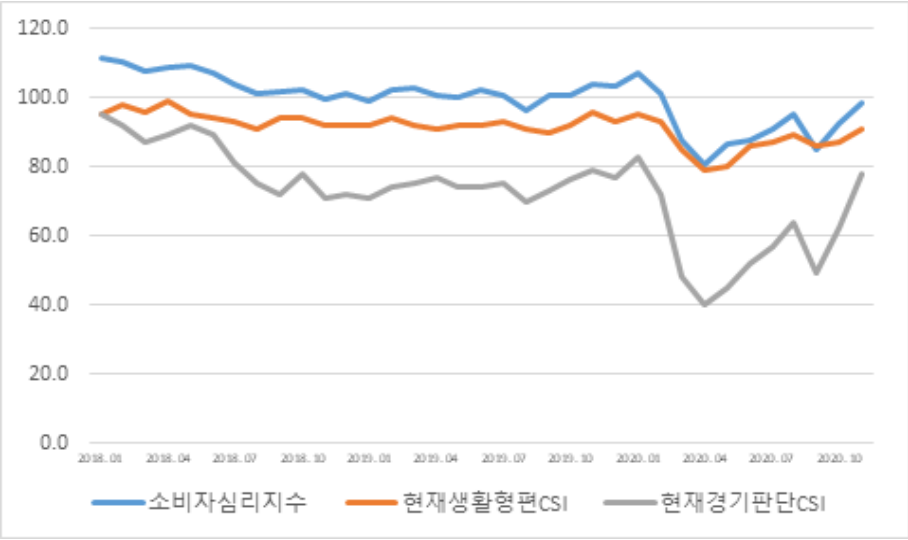
	2019				2020		
	1Q	2Q	3Q	4Q	1Q	2Q	3Q p)
소매판매액지수	97.9	101.9	101.1	105.2	95.7	109.8	101.6
	(△0.1)	(△0.7)	(0.3)	(2.5)	(△2.2)	(7.8)	(0.5)
- 대형마트	88.8	80.3	91.0	80.5	83.3	78.4	90.9
	(△7.3)	(△13.5)	(△10.7)	(△7.8)	(△6.2)	(△2.4)	(△0.1)
-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	96.1	105.9	111.5	98.4	101.0	109.3	111.4
	(△2.2)	(0.8)	(△0.6)	(0.8)	(5.1)	(3.2)	(△0.1)
- 전문소매점	96.7	99.6	96.1	101.3	93.0	104.6	95.4
	(1.6)	(0.0)	(0.0)	(1.6)	(△3.8)	(5.0)	(△0.7)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을 의미

○ 전라북도 소비자심리지수 월별 추이를 보면 2020년 1월까지 보합세를 보여 왔으나,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면서 급락하게 되었고 4월과 9월에 각각 반등하여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월달에 반등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영향이 크며, 9월달 반등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에 따라 외부 활동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월달에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게 되면서 다시 소비심리는 위축되었다.

○ 현재생활형편CSI는 소비자심리지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2020년에는 소비자심리지수에 비해 변동폭이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소비 심리는 봉금생활자와 자영업자 모두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소비가 위축되거나 개선되는 게 바로 나타나지만, 생활 형편은 소득과 연동되어 자영업자는 민간하게 반응하지만 봉급생활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하다보니 현재생활형편CSI의 변동폭이 작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경기판단CSI는 군산발 지역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역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타 지역에 비해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변동하여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0〉 전북 지역 소비자심리지수 월별 추이

○ 전북지역 카드 실적을 보면 2020년 10월까지의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하여 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2월부터 5월까지 소비 감소가 크게 작용하였다. 소비 감소에 크게 기여한 항목은 여행/교통, 패션/잡화, 미용, 주유, 교육/학원으로 외부 활동과 연결되는 소비 항목들의 소비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가전/가구, 가정생황/서비스, 음/식료품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 접촉이 피하는 소비 패턴을 보여줬다.

〈표 2-5〉 전북지역 신용카드 매출액 추이(전년 동월 대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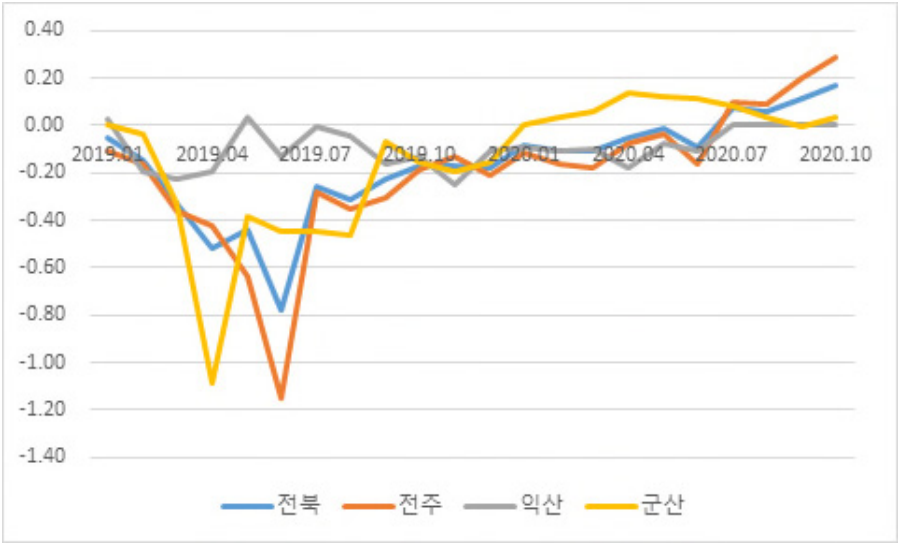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누계
합계	4.5	△9.9	△9.8	△8.4	△3.3	△1.4	△4.2	△5.3	2.7	△4.8	△4.0
- 가전/가구	△8.8	△16.8	△27.2	△1.5	11.7	30.9	△1.7	18.7	19.3	△2.7	1.6
- 가정생활/서비스	△1.3	5.5	△3.9	3.5	1.2	25.7	1.6	9.6	27.4	△0.4	6.4
- 교육/학원	△5.6	△13.0	△19.4	△15.9	△8.3	△4.5	△8.6	△9.1	△3.2	△7.5	△9.5
- 미용	△6.7	△14.1	△18.8	△13.9	△5.9	△10.0	△8.6	△13.3	△7.1	△12.9	△11.1
- 스포츠/문화/레저	△1.0	△20.2	△26.1	△9.6	10.0	5.7	△0.5	△4.1	4.1	7.8	△3.0
- 여행/교통	2.1	△27.2	△42.2	△39.3	△31.9	△20.1	△18.7	△13.3	△10.7	△9.9	△19.8
- 요식/유흥	2.8	△16.7	△19.5	△10.5	△1.0	△4.3	△1.5	△7.9	△9.5	△8.0	△7.5
- 유통	7.4	△15.2	△3.9	△3.1	4.2	1.6	1.1	6.1	15.2	3.5	1.9
- 음/식료품	18.5	△14.2	8.0	6.9	16.6	6.2	7.1	2.6	16.0	2.5	7.3
- 의료	6.8	6.0	2.4	△2.9	4.6	14.8	3.5	△2.8	15.1	△5.1	4.0
- 자동차	△13.2	△8.4	△10.8	△13.8	△0.2	10.3	△2.4	2.2	18.3	15.3	△0.4
- 주유	8.9	0.9	△3.9	△13.4	△24.8	△16.4	△16.8	△17.5	△10.2	△15.5	△11.4
- 패션/잡화	△12.6	△26.8	△31.8	△24.1	6.9	△2.7	△13.2	△23.5	△17.7	△12.6	△15.4

* 자료: 신한카드 내부자료

3)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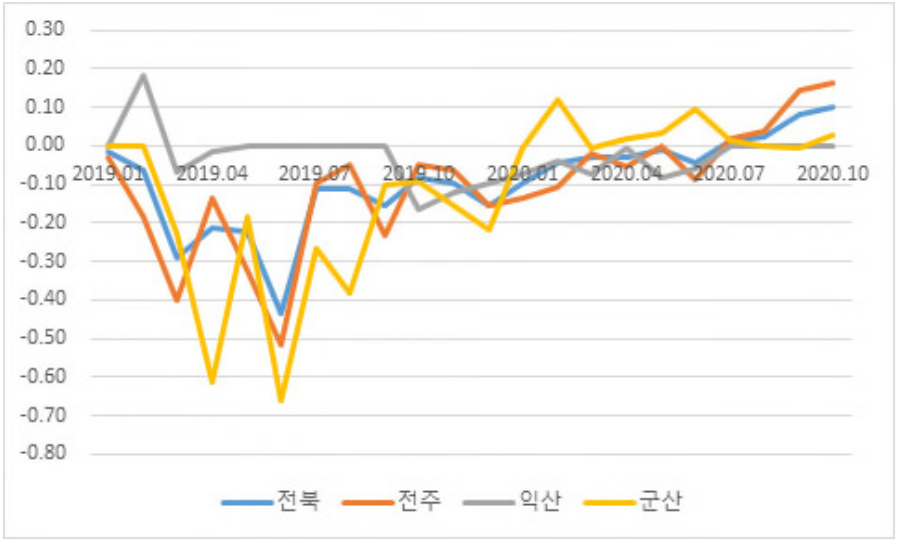
❍ 전북지역 주택가격은 2020년 1/4분기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투기의 풍선효과로 인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전라북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고 전주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혁신도시를 포함한 3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이에 전주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전주시 전 지역을 부동산 거래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전북지역 전세가격은 계절성을 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의 일부 지역 매매가격 급등에 따라 전세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매매가격 상승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전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KB주택가격동향

〈그림 2-21〉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전월 대비)



자료 : KB주택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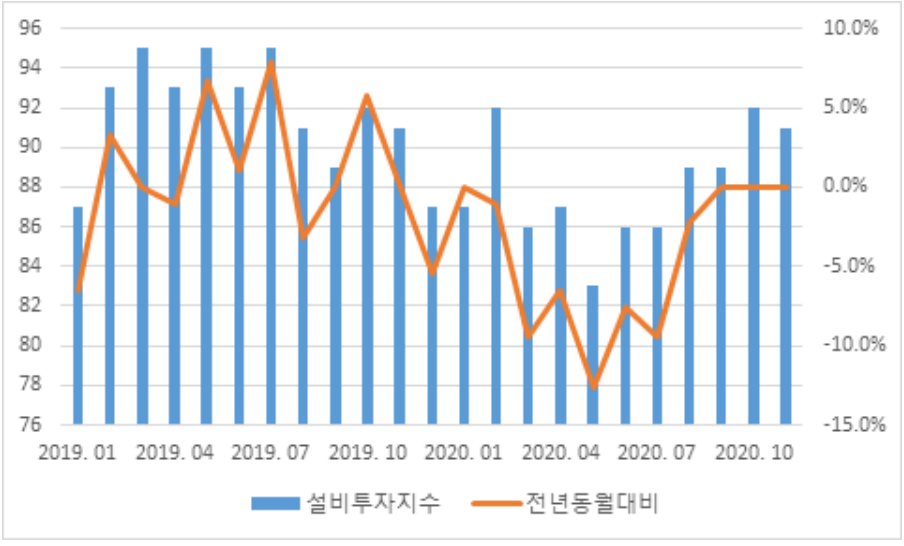
〈그림 2-22〉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추이(전월 대비)

3. 투자 측면

1) 설비투자

❍ 2020년 전북지역 설비투자는 GM 군산공장 부지 및 새만금 산업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GM 군산공장 부지에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등으로 구성된 전기자동차 생산 컨소시엄이 전기SUV및 초소형 전기차 등의 생산을 위한 설비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대표 식품업체인 하림이 간편식 생산을 위해 현재 5,000억원 규모의 설비를 투자하여 2020년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식품과 전지자동차 분야를 제외한 다른 업종은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기존 설비의 유지 보수 수준으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설비투자지수는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림 2-23〉 전북 지역 설비투자지수 월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2) 건설투자

○ 2020년 전북지역 건설투자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500세대 이하의 중소규모 아파트 위주의 건설이 중심이 되면서 주거용 건물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다만 2019년 4/4분기 이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건축허가면적이 늘어나면서 2021년도 주거용 건물 투자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 전북지역 용도별 건축허가면적 추이(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19.1Q	'19.2Q	'19.3Q	'19.4Q	'20.1Q	'20.2Q	'20.3Q
총 건축허가면적	△25.8%	△9.5%	△7.2%	26.7%	9.9%	△16.0%	△11.2%
- 단독주택	△31.6%	△43.8%	△61.6%	0.1%	△24.4%	△14.1%	9.4%
- 공동주택	22.0%	36.4%	△17.7%	258.5%	32.4%	4.8%	62.9%
- 제1종근생	△5.1%	2.1%	△22.3%	△46.2%	△13.5%	△24.9%	△21.2%
- 제2종근생	△25.8%	3.1%	△34.5%	△9.2%	△16.5%	△23.0%	21.1%
- 공장	18.7%	21.5%	△10.5%	46.5%	58.4%	△29.4%	△17.9%

* 자료: 국가통계포털

○ 토목 투자는 새만금 중심의 대형 공사(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4분기에 새만금 수변도시 부지 매립이 1,625억 규모로 착공하게 됨에 따라 내년도 건설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업 자금 사정

○ 전북지역 기업의 자금사정은 2019년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제조업은 2019년 하반기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사정난이 더욱 심화되었다, 비제조업 역시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 1월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전라북도 및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긴급 자금 지원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게 되면서 자금사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24〉 전북지역 기업 자금사정 BSI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전북지역의 기업들의 대출 추이를 보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20년에는 예금은행 대출 증가율이 많이 상승하였다.

〈표 2-7〉 전북지역 기업대출 추이(전년 동기 대비)

	'19.1Q	'19.2Q	'19.3Q	'19.4Q	'20.1Q	'20.2Q	'20.3Q
기업대출 합계	15.6%	17.7%	17.2%	18.4%	20.0%	22.4%	23.0%
- 예금은행	4.6%	4.4%	3.6%	4.9%	6.0%	8.3%	10.0%
- 비은행	37.4%	42.4%	40.7%	40.7%	41.1%	41.4%	39.8%

* 자료: 국가통계포털

4. 교역 측면

❍ 전북 지역 수출은 2020년 3/4분기까지의 누적 실적 기준으로 4,73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13.7% 감소하였으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전북 지역의 수출의 20% 가까이 차지했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GM군산공자의 폐쇄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 전북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뿐만 아니라 합성수지, 건설 및 농기계, 동으로 농기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추세에 있다.

〈표 2-8〉 전북지역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

	2019년 3/4분기(누적)			2020년 3/4분기(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5,480	△17.4	100.0	4,731	△13.7	100.0
- 정밀화학원료	597	△24.8	10.9	405	△32.2	8.6
- 합성수지	395	△27.9	7.2	341	△13.7	7.2
- 자동차	519	△12.0	9.5	323	△37.8	6.8
- 건설광산기계	367	△13.2	6.7	318	△13.4	6.7
- 동제품	294	7.7	5.4	318	△8.2	6.7
- 농약/의약품	339	△4.5	6.2	294	△13.3	6.2
- 농기계	206	△33.1	3.8	241	17.0	5.1
- 인조섬유	202	△11.8	3.7	190	△5.9	4.0
- 자동차부품	343	△24.1	6.3	167	△51.3	3.5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전북 지역의 주요 수출 교역국은 중국과 미국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주로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을 대상으로 농기계, 정밀화학원료, 인조섬유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이 외 베트남은 자동차 수출의 주요 대상국이다.

〈표 2-9〉 전북지역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

	2019년 3/4분기(누적)			2020년 3/4분기(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5,480	△17.4	100.0	4,731	△13.7	100.0
- 중국	1,215	△12.1	22.2	1,042	△14.2	22.0
- 미국	757	△8.7	13.8	749	△1.1	15.8
- 일본	377	△7.4	6.9	301	△20.2	6.4
- 베트남	324	△12.0	5.9	293	△9.6	6.2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전북 지역의 수출이 2019년에 이어 계속 하락세에 있는 이유는 주요 수출 품목인 상용차의 수출 대상 국가에서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으로 경기 위축에 따른 상용차 수요 위축과 1/4분기에 OCI 군산공장이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에 따라 수출 물량 감소 때문이다.

❍ 전북 지역 수입은 2020년 3/4분기까지의 누적 실적 기준으로 3,95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5.3% 감소하였으며, 수출과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에 있어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농약/의약품과 식물성 물질로 중국과 일본, 미국이 주요 수입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표 2-10〉 전북지역 주요 품목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

	2019년 3/4분기(누적)			2020년 3/4분기(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4,180	△7.7	100.0	3,959	△5.3	100.0
- 농약/의약품	363	△6.9	8.7	520	43.3	13.1
- 식물성 물질	552	1.1	13.2	384	△30.4	9.7
- 농기계	204	3.6	4.9	222	8.8	5.6
- 정밀화학원료	267	△11.3	6.4	219	△18.0	5.5
- 목재류	238	△29.0	5.7	188	△21.0	4.7
- 동제품	204	60.6	4.9	145	△28.9	3.7
- 알루미늄	176	△29.0	4.2	131	△25.6	3.3

*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2-11〉 전북지역 주요 국가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

	2019년 3/4분기(누적)			2020년 3/4분기(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4,180	△7.7	100.0	3,959	△5.3	100.0
- 중국	942	△9.7	22.5	785	△16.7	19.8
- 일본	646	△1.4	15.5	676	4.6	17.1
- 미국	542	△18.9	13.0	480	△11.4	12.1
- 베트남	265	△10.2	6.3	235	△11.3	5.9
- 브라질	247	55.3	5.9	176	△28.7	4.4

* 자료: 한국무역협회

5. 고용 측면

❍ 전북지역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2020년 3/4분기에 1.9% 수준으로 경제활동인구 변동에 비해 실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고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 2020년 분기별 고용률은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15~64세 고용률 역시 63.3%, 63.7%, 65.3%로 증가 추세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고용 시장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표 2-12〉 전북지역 고용 동향(전년 동기 대비)

(단위: %, %p)

	2019년				2020년		
	1Q	2Q	3Q	4Q	1Q	2Q	3Q
경제활동인구	2.4	1.0	1.1	1.2	△0.2	△0.9	0.8
- 취업자 수	2.0	1.5	1.0	1.2	0.4	△1.2	1.4
- 실업자 수	10.7	△10.3	4.5	45	△16.1	3.8	△17.4
- 실업률	0.2	△0.4	0.0	0.0	△0.5	0.2	△0.5
- 고용률	1.3	1.1	0.8	1.0	0.6	△0.4	1.1
- 15~64세 고용률	0.5	0.9	0.6	0.3	△0.3	△1.3	0.8

* 자료: 국가경제포탈

❍ 취업자 수는 분기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급가족종사자가 늘어나고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고용 시장에서 취약계층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임시 및 일용근로자 대신에 무급가족종사자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표 2-13〉 전북지역 취업자 동향(전년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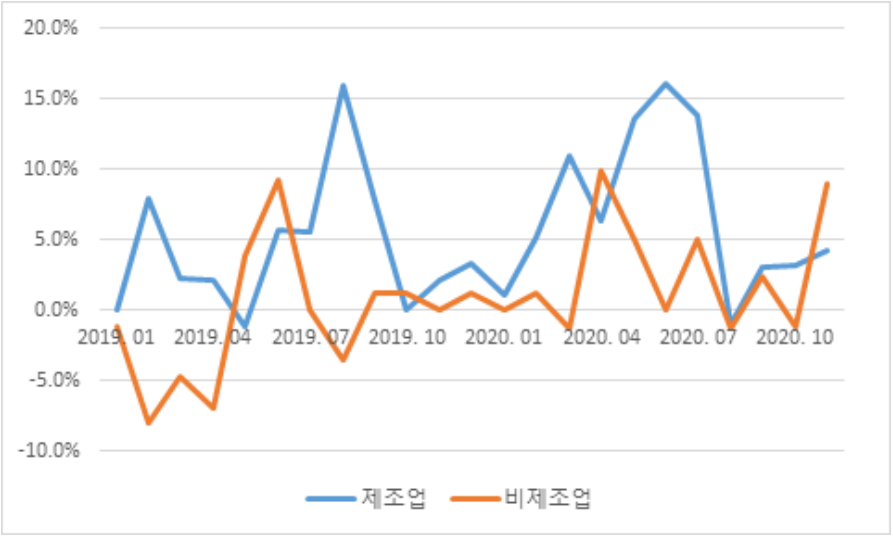
(단위: %)

	2019년				2020년		
	1Q	2Q	3Q	4Q	1Q	2Q	3Q
취업자	2.0	1.5	1.0	1.2	0.4	△1.2	1.4
- 비임금근로자	1.7	0.0	2.2	3.2	6.8	4.4	4.0
- 자영업자	0.0	1.7	2.9	5.0	7.6	4.1	2.4
- 무급가족종사자	9.6	△5.1	△1.3	△2.7	3.5	6.8	9.1
- 임금근로자	2.4	2.3	0.5	0.2	△2.8	△4.0	0.0
- 상용근로자	3.9	2.6	3.4	4.9	1.3	3.3	2.7
- 임시근로자	△7.7	0.6	△5.2	△2.7	△5.6	△15.3	△0.7
- 일용근로자	18.2	6.6	△3.0	△17.6	△21.5	△21.5	△17.2

* 자료: 국가경제포탈

○ 기업 입장에서 인력 확보에 대해 제조업의 경우 2/4분기에 채용 시장이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으며, 비제조업 분야는 변동성이 큰 상황으로 채용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5〉 전북지역 기업 인력사정 BSI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제3절 시사점

1. 트렌드 분석 결과

- ❍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는 지역내 경제 규모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 산업 영향력이 큰 상황이다.
- ❍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특정 산업의 성장 여부에 따라 지역 경제 성장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1990년대 중반과 2000년 중반에 이들 산업이 GRDP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2016년 이후 이들 산업의 구조조정 및 시장 위축으로 산업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서 전라북도 경제 침체를 불러 일으켰다.
- ❍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라북도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국가 전반적인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 금융 및 IT,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향후 지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 ❍ 전라북도 사업체는 2005년~2015년 사이에 연평균 증가율이 전북 평균 증가율에 비해 높았으나, 그 만큼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이루지 못하였고 영세성으로 인해 수익성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져 신규 투자 및 고용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 ❍ 이러한 현상이 결국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로 이어지지 못해 산업 생산 증가의 기회를 상실해 가고 있다.
- ❍ 전라북도의 GRDP 수요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소비는 민간소비지출이지만, 실제 GRDP 성장에 기여해 온 분야는 정부소비지출과 토목투자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 특히 설비 투자나 공장 증설과 같은 산업 투자 비중이 낮아 산업 생산 원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지역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대규모 SOC 등의 토목 투자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투자에 따른 GRDP 성장이 더딘 상황이다.

❍ 전라북도 경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 내 GRDP 지출 수요는 많지만, 그만큼 생산을 하지 못해 수요의 일부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 국내외 교역 수지의 적자 폭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GRDP의 16.5% 수준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주력산업의 후방산업이 취약하여 중간재들이 타 지역으로부터 들어와 최종재를 생산하는 산업구조이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GRDP 성장 효과가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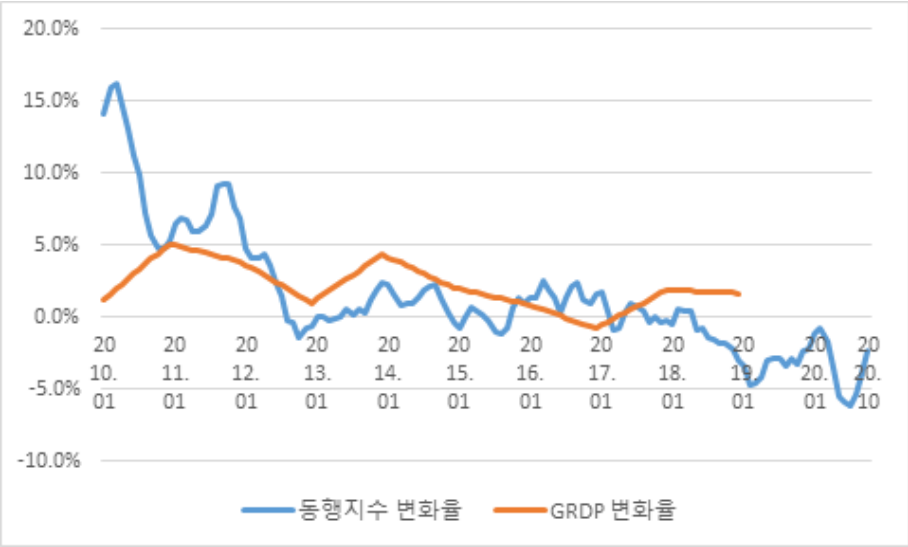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 전환이 늦어져 제조업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20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민간 소비 침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의 서비스업까지 동반 부진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다만, 이러한 현상은 2분기까지 보였고 3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코로나 19라는 외부 변수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긴 하였으나, 이보다는 제조업의 고용 위기 및 수출 급감은 지역 산업 생태계 문제라는 내부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

2. 자료 처리 관련 및 후속 과제 반영 사항

- ❍ GRDP와 관련한 지표들은 지역 경제를 종합적인 측면을 대변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경제 트렌드를 분석하기에 용이한 지표이며,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하지만 GRDP는 연 단위로 공표가 되며, GDP보다 1년 더 지연되어 잠정 혹은 확정 발표가 되기 때문에 최근의 단기 트렌드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 단기 트렌드 분석에서 사용된 지표들은 생산지수나 소비자 심리지수와 같이 월 단위로 공표되고 1~2달의 지연 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최신 경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 트렌드 분석에는 용이하다.
- ❍ 하지만, GRDP와 다르게 특정 시점 기준의 상대지수의 개념으로 특정 부문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직관적이지 못해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타 지역과의 비교가 힘들고 전반적인 경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 국가 단위에서는 전산업생산지수가 있어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나 지역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 부문별로 파악할 수 밖에 없어 종합적인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없다.
- ❍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역마다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고 전라북도 역시 경기동행종합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그림 2-26〉 동행지수 및 GRDP 변화율 추이 비교

- ❍ 위 그림과 같이 동행지수와 GRDP의 변화율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동행지수가 전라북도의 중장기, 단기 트렌드를 파악하기에는 용이하다.
- ❍ 하지만, 지수만을 가지고 그 시점에 왜 그러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표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 ❍ GRDP는 산업적인 측면, 지출 측면의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어 GRDP를 분해하여 전반적인 경제 변화 양상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동행종합지수는 경기 흐름을 잘 설명하는 통계 지표를 인위적으로 조합하여 만든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 구성 지표를 가지고만 설명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2].
- ❍ 전라북도의 경제 트렌드 및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경제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선행종합지수가 필요하여,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부문별 경기종합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2)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경기동행종합지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자 한다.

3 장

전라북도 경제요소별 경쟁력 및 영향력

제1절 생산 측면
제2절 고용 측면
제3절 종합 분석

제3장 전라북도 경제요소별 경쟁력 및 영향력

제1절 생산 측면

1. 분석 방법론

- ❍ 지역 경제 성장은 지역의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 외적 요인은 타 지역의 경제 성장[3]과 같이 지역 밖에서 지역 산업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내적 요인은 지역 내부 구조의 특징으로 산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생산 환경을 의미한다.
- ❍ 지역 경제 성장 요인을 이와 같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변이할당분석을 들 수 있다. 변이할당 분석은 지역의 성장 과정 뿐만 아니라 성장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잇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 변이할당분석은 지역의 성장은 지역 산업의 성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산업 성장 요인을 크게 3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4].
- ❍ 첫 번째 성장 요인은 전국 경제 성장 요인(National Growth Component)으로 전국의 경제 성장이 해당 지역의 산업 성장에 영향을 주고 소득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 ❍ 두 번째 성장 요인은 산업구조 요인(Industry-Mixed Component)으로 특정 산업의 전국적인 성장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은 그 트렌드에 따라 성장하여 지역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만약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요인이 양(+)의 값을 가진다면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은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산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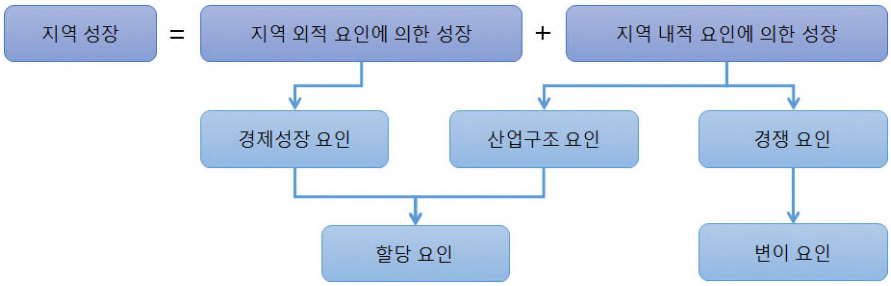
3) 지역 경제는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생산 및 지출에 의해 해당 지역의 산업 생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경제 성장을 통해 지역 산업의 외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역 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있게 됨

4) 김홍배(2007),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라고 판단할 수 잇다.

❍ 마지막 성장 요인은 경쟁 요인(Competition Component)으로 지역의 생산 환경의 특징[5] 타지역과 대비한 경쟁적 위치에 있을 경우 경쟁력의 크기에 따라 우위 산업이 되어 지역 성장을 이끈다는 가정 하에서 분석되는 값이다.

〈그림 3-1〉 지역 성장의 요인별 분류



출처 : 김홍배(2007)

❍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구해지는 총성장효과는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우변의 각 항은 전국 경제 성장 요인, 산업구조 요인, 경쟁요인을 의미한다.

- 총성장효과 =

$$E_{ij}(t_0)\times\frac{E(t_1)-E(t_0)}{E(t_0)}+E_{ij}(t_0)\times\left[\frac{E_i(t_1)}{E_i(t_0)}-\frac{E(t_1)}{E(t_0)}\right]+E_{ij}(t_0)\times\left[\frac{E_{ij}(t_1)}{E_{ij}(t_0)}-\frac{E_i(t_1)}{E_i(t_0)}\right]$$

E_{ij} : j지역 i산업의 종사자수, E_j : j지역 총 종사자수
E_i : 전국 i산업의 종사자수, E : 전국 총 종사자수
t_1 : 비교시점, t_0 : 기준시점

❍ 변이할당분석은 지역경제의 성장효과를 요인별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변수의 증가분을 절대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역 산업 성장 효과를 바로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5) 시장 입지, 운송 편의, 인구 유입, 기타 산업입지요소 및 지자체의 산업육성정책 등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별 기여도를 성장률로 표시하는 형식으로 보완된 지역성장률 시차분석모형이 제시되었다.

❍ 이 모형은 변이할당분석의 확장 모형으로 기본식은 지역의 총성장률시차를 해당지역 특정산업의 실질 성장률과 전국 특정산업의 성장률 차이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분석된다.

❍ 이 성장률시차는 다시 경쟁력요인과 가중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경쟁력요인은 변이할당분석의 경쟁 요인으로 설명되고 가중요인은 산업구조 요인으로 설명된다.

❍ 지역성장률 시차분석모형의 식은 다음과 표현할 수 있다.

$$TR_{ij} = GR_{ij}(t_0,t_1) - GR_i(t_0,t_1) = WP + RP$$

$$GR_{ij}(t_0,t_1) = \frac{E_{ij}(t_1) - E_{ij}(t_0)}{E_j(t_0)}$$

$$WP = \left[\frac{E_{ij}(t_0)}{E_j(t_0)} - \frac{E_i(t_0)}{E(t_0)} \right] \times \left[\frac{E_i(t_1) - E_i(t_0)}{E_i(t_0)} \right]$$

$$RP = \left[\frac{E_{ij}(t_1) - E_{ij}(t_0)}{E_{ij}(t_0)} - \frac{E_i(t_1) - E_i(t_0)}{E_i(t_0)} \right] \times \frac{E_{ij}(t_0)}{E_j(t_0)}$$

TR_{ij} : j지역 i산업 성장률 총시차
GR_{ij} : j지역 i산업 실질 성장률, GR_i : 전국 i산업 실질성장률
WP : 가중요인, RP : 경쟁력요인
E_{ij} : j지역 i산업의 종사자수, E_j : j지역 총 종사자수
E_i : 전국 i산업의 종사자수, E : 전국 총 종사자수
t_1 : 비교시점, t_0 : 기준시점

❍ 위 식에서 가중요인(WP)의 값이 양(+)이면 해당 산업의 지역내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서 전국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절대값이 커질수록 전국적인 성장의 영향으로 지역 산업도 함께 성장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

❍ 경쟁력요인(RP)의 값이 양(+)이면 해당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만약 가중요인과 경쟁력요인이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면 그 지역의 산업은 지역 경제 및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이며, 그 값이 클수록 기여도 역시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모형을 통해 정책적으로 활용가능한 점은 지역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모형을 통해 계산되는 총시차, 가중요인과 경쟁력요인의 부호에 따라서 산업군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산업군에 맞는 산업육성정책을 펼칠 수 있다[6].

❍ 만약 가중요인과 경쟁력요인이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면서 그 값이 클 경우에는 산업 자체의 성장 속도가 크고 해당 산업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가중요인은 음(-)의 값을 갖지만 경쟁력요인이 이를 상쇄할 정도로 큰 양(+)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해당 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이와 반대로 경쟁력요인은 음(-)의 값을 가지지만 가중요인이 이를 능가하여 총시차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해당 산업은 비록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잠재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 총시차가 음(-)의 값을 가지는 산업의 경우에는 정체산업과 사양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산업군 중에서 경쟁력요인이 양(+)의 값을 가지는 산업을 제외하고는 향후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책적인 관리 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할 필요가 있다.

---

6) 강승호(2014), 강원지역 문화· 관광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방안, 한국은행 강릉본부 2014년도 지역경제세미나(강원경제의 일자리 창출: 평가와 전략), 제3발표논문

〈표 3-1〉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모형에 의한 산업 성장 기여도 분류

산업 구분	총시차(TR)	가중요인(WP)	경쟁력요인(RP)
성장산업	+	+	+
경쟁산업	+	-	+
잠재산업	+	+	-
정체산업	-	+	-
		-	+
사양산업	-	-	-

출처 : 강승호(2014)

2. 분석 결과

❍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라북도의 산업별 총시차를 2012년을 기점으로 전후반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후반기 모두 국내 실질 성장률보다 높았던 산업군을 농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다.

❍ 이 중에서 앞서 트렌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과 식료품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전라북도의 강점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국가 평균에 비해 더 크게 상승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 전반기에는 국가 평균에 비해 낮지만 하반기에 더 많이 성장한 산업군 중 대표적인 산업군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적재산생산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성장 추세에 있는 산업으로 특히 연구개발특구 및 국가 연구기관 유치 등의 효과가 작용하였다.

〈표 3-2〉 기간별 산업별 실질성장률 차이 변화 추이(1,2차 산업)

(단위 : %)

산업 구분	지역 실질성장률		국내 실질성장률		총시차	
	2006 ~2012	2012 ~2018	2006 ~2012	2012 ~2018	2006 ~2012	2012 ~2018
농업, 임업 및 어업	18.16	7.53	0.34	6.19	17.81	1.34
광업	1.54	1.86	-0.84	-0.26	2.38	2.11
식료품 제조업	87.65	89.26	18.52	32.62	69.14	56.64
음료 제조업	-0.16	-1.36	0.15	1.69	-0.31	-3.0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23	-6.70	-2.40	-1.49	2.63	-5.2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5	-18.79	-1.17	-7.65	3.02	-11.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74	0.46	1.89	-0.44	-2.63	0.9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6.33	4.69	-1.02	3.64	-5.31	1.0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64	0.48	3.36	5.70	-1.71	-5.2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3	1.61	-0.53	1.86	-1.29	-0.2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82	-0.02	1.47	0.14	-0.65	-0.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56.01	24.86	15.89	17.94	40.12	6.9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66	2.19	4.11	8.65	-5.77	-6.4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88	-0.66	26.26	17.95	-6.38	-18.6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13	0.18	1.56	8.90	3.58	-8.72
1차 금속 제조업	43.13	4.78	21.65	3.74	21.47	1.0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11.27	-8.76	48.19	26.23	63.09	-34.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46	-3.12	17.32	-4.42	-14.86	1.3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97	4.15	21.62	7.40	-10.66	-3.25
전기장비 제조업	24.75	7.56	25.91	18.84	-1.16	-11.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2.79	10.33	56.87	37.77	15.92	-27.4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7.98	6.90	28.82	24.38	29.16	-17.4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6.02	-29.72	22.34	-15.68	23.68	-14.04
가구 제조업	-0.16	3.35	-0.29	7.83	0.13	-4.48
기타 제품 제조업	-0.88	8.13	0.65	6.97	-1.54	1.15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3.92	-0.03	4.19	5.88	-0.27	-5.91

❍ 전반기에는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후반기에는 낮은 성장을 보인 산업군 중 대표적인 산업군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역 내 주력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서비스업 중에서 도소매, 음식점업의 성장 둔화가 눈에 띈다.

〈표 3-3〉 기간별 산업별 실질성장률 차이 변화 추이(3차 산업)

(단위 : %)

산업 구분	지역 실질성장률		국내 실질성장률		총시차	
	2006 ~2012	2012 ~2018	2006 ~2012	2012 ~2018	2006 ~2012	2012 ~201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53	8.52	0.07	8.06	6.46	0.4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80	16.48	8.79	10.55	12.02	5.93
건설업	163.11	206.16	143.73	227.23	19.38	-21.07
도매 및 소매업	198.78	144.08	182.53	252.49	16.25	-108.41
운수업	125.61	-7.88	92.70	71.63	32.91	-79.51
숙박 및 음식점업	197.57	193.70	153.78	224.91	43.79	-31.2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21	8.96	59.21	56.98	-73.43	-48.02
금융 및 보험업	64.43	-4.86	66.61	-7.15	-2.18	2.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32.82	53.43	15.27	58.27	17.55	-4.8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7.08	148.94	159.10	139.58	-82.02	9.3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91.84	43.82	186.36	156.49	5.48	-112.6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3.46	59.98	61.45	52.07	-27.99	7.91
교육 서비스업	176.19	50.76	146.29	83.28	29.91	-32.5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56.57	408.19	341.30	344.83	115.27	63.3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27	58.76	35.20	52.91	4.07	5.84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0.65	22.16	63.06	27.14	-2.41	-4.98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라북도의 산업별 총시차를 가중 요인과 경쟁력 요인으로 분해하여 산업 성장 유형을 구분한 결과, 지속적으로 성장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은 식료품 제조업과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이다.

❍ 섬유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상반기에 성장 산업의 위치에 있었으나, 하반기에 정체산업으로 전환되어 지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산업에 해당된다.

❍ 가중 요인이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해당 산업이 전국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군은 19개 산업으로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향후 국가적인 성장 트렌드에 따라 잠재력을 확보하였다고 평가되는 산업군이다. 대표적인 산업은 화학산업, 전자부품산업과 전기,가스, 증기 공급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산업으로 지역 산업 정책의 유무에 따라 향후 지역 경제 발전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군이다.

❍ 경쟁력 요인이 양(+)의 값을 해당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으로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군은 31개 산업이 있다. 대표적인 산업으로 1차 금속 제조업,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지역 특화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성장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사양산업이라고 판단되는 산업의 경우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표 3-4〉 산업별 성장률 시차 분석 결과(1,2차 산업)

(단위 : %)

산업 구분	총시차		가중요인		경쟁력요인	
	2006 ~2012	2012 ~2018	2006 ~2012	2012 ~2018	2006 ~2012	2012 ~2018
농업, 임업 및 어업	17.81	1.34	0.46	13.13	17.35	-11.79
광업	2.38	2.11	-0.41	-0.18	2.79	2.30
식료품 제조업	69.14	56.64	20.22	42.16	48.92	14.48
음료 제조업	-0.31	-3.05	0.26	2.78	-0.57	-5.8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63	-5.21	0.73	0.45	1.89	-5.6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02	-11.14	0.10	0.64	2.91	-11.7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63	0.91	-1.64	0.41	-0.99	0.5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5.31	1.06	-0.98	2.59	-4.33	-1.5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	-5.22	1.27	1.57	-2.98	-6.7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9	-0.25	0.32	-1.22	-1.62	0.9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65	-0.16	-1.13	-0.10	0.48	-0.0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0.12	6.92	6.72	13.39	33.40	-6.4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77	-6.46	0.55	-1.74	-6.32	-4.7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38	-18.62	-12.50	-8.19	6.12	-10.4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58	-8.72	1.50	8.33	2.08	-17.05
1차 금속 제조업	21.47	1.04	-5.30	-0.05	26.77	1.0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3.09	-34.99	-31.94	-8.64	95.02	-26.3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86	1.30	-12.77	3.32	-2.09	-2.0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66	-3.25	-19.21	-5.77	8.55	2.51
전기장비 제조업	-1.16	-11.28	-16.86	-10.50	15.69	-0.7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92	-27.43	-34.65	-16.43	50.57	-11.0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9.16	-17.48	22.38	18.47	6.78	-35.9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3.68	-14.04	-21.75	8.73	45.43	-22.77
가구 제조업	0.13	-4.48	0.14	-3.83	-0.01	-0.65
기타 제품 제조업	-1.54	1.15	-0.01	-0.57	-1.53	1.72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0.27	-5.91	1.04	0.98	-1.31	-6.89

〈표 3-5〉 산업별 성장률 시차 분석 결과(3차 산업)

(단위 : %)

산업 구분	지역 실질성장률		국내 실질성장률		총시차	
	2006 ~2012	2012 ~2018	2006 ~2012	2012 ~2018	2006 ~2012	2012 ~201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46	0.46	0.00	1.82	6.46	-1.3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02	5.93	2.93	4.72	9.09	1.21
건설업	19.38	-21.07	10.26	12.20	9.12	-33.27
도매 및 소매업	16.25	-108.41	5.56	1.71	10.69	-110.12
운수업	32.91	-79.51	-7.26	-3.23	40.17	-76.27
숙박 및 음식점업	43.79	-31.20	4.04	6.33	39.76	-37.5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3.43	-48.02	-23.35	-32.13	-50.08	-15.89
금융 및 보험업	-2.18	2.29	6.97	-0.39	-9.15	2.6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55	-4.83	-4.75	-14.54	22.30	9.7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2.02	9.37	-87.72	-77.28	5.70	86.6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48	-112.67	-75.10	-44.66	80.58	-68.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7.99	7.91	36.50	20.66	-64.49	-12.75
교육 서비스업	29.91	-32.52	37.43	17.68	-7.52	-50.2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27	63.35	154.33	125.61	-39.06	-62.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07	5.84	-0.53	-1.23	4.60	7.07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41	-4.98	17.50	5.58	-19.92	-10.56

❍ 산업 성장의 두 요인의 부호에 따라 산업의 성장 유형을 크게 5가지, 성장산업, 경쟁산업, 잠재산업, 정체산업, 사양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성장산업은 가중요인과 경쟁력요인이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로 이 산업군에 속하는 산업은 12개 산업으로 대표적인 성장산업은 농업, 식료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전북에서 주력으로 육성시키고 있는 산업들임

〈표 3-6〉 산업 성장 기여도에 따른 전라북도 산업 유형 분류

산업 구분	산 업
성장산업	식료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ㄹ 재생업
경쟁산업	광업,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잠재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향 음향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체산업	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자동ㅊ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양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언 및 임대 서비스업

제2절 고용 측면

1. 분석 개요

○ 지역 경제 성장이 고용 창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고용탄력성과 취업계수로 고용탄력성의 경우 지역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률이 얼마만큼 증가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고용탄력성 = 취업자 증가율 / 지역내 총생산 성장률

○ 만약 고용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취업자 증가율이 경제 성장 속도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산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반해 고용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경제 성장 속도가 취업자 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고용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또 다른 지표인 취업계수는 일정기간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취업자 수를 총 산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지역내 총생산 단위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취업계수 = 취업자수 / 지역내 총생산

○ 취업계수 값이 높은 지역은 같은 단위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취업자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경제 고용 창출 능력 분석

○ 2000년 이후 고용 탄력성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0.3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 성장이 1% 이루어졌을 때 취업자 수는 0.33%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고용탄력성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서 국내 경제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지역별 변동 추이를 보면, 대전광역시의 고용탄력성이 0.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이 -0.1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고용탄력성의 편차는 2000년대 초반에 0.30에서 2010년 초반은 0.43으로 점점 그 격차가 커지고 있어 지역간 고용 시장 환경의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 지역별 고용탄력성 비교(2000년~2020년)

	2000~2005년		2005~2010년		2010~2015년		2015~2020년	
	고용탄력성	순위	고용탄력성	순위	고용탄력성	순위	고용탄력성	순위
전국	0.34		0.21		0.60		0.33	
서울	0.29	8	0.07	9	0.54	9	0.25	11
부산	-0.03	14	-0.29	15	0.65	8	0.02	15
대구	0.57	4	-0.09	14	0.21	16	0.25	10
인천	0.33	7	0.46	3	1.92	1	0.53	4
광주	0.52	5	0.39	5	0.78	5	0.52	5
대전	0.61	2	0.56	2	0.75	6	0.61	1
울산	0.58	3	1.07	1	0.23	15	0.59	2
경기	0.65	1	0.40	4	0.49	12	0.53	3
강원	0.04	12	-0.03	12	0.52	10	0.12	12
충북	0.14	10	0.31	6	0.33	13	0.26	9
충남	0.11	11	0.14	8	0.94	4	0.27	8
전북	-0.15	15	-0.07	13	1.13	2	0.11	13
전남	-0.33	16	-0.30	16	0.75	7	-0.19	16
경북	-0.01	13	-0.01	10	0.29	14	0.03	14
경남	0.29	9	0.16	7	0.98	3	0.30	7
제주	0.41	6	-0.02	11	0.49	11	0.30	6

❍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2000년대에는 고용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졌으나, 2010년 이후에는 1.13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보여 고용 시장이 매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 이후 평균 고용계수는 20.87로 이는 10억원의 생산 활동에 20.8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전환되어 노동을 절약하는 생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른 고용 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볼 때에도 이러한 추세는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표 3-8〉 지역별 고용계수 비교(2000년~2020년)

(단위 : 명/10억원)

	2000~2005년		2005~2010년		2010~2015년		2015~2020년	
	고용계수	순위	고용계수	순위	고용계수	순위	고용계수	순위
전국	23.56		20.29		18.49		20.87	
서울	20.26	13	17.96	13	16.74	12	18.42	13
부산	30.71	3	26.22	5	24.33	5	27.32	3
대구	35.60	1	31.93	1	29.19	1	32.42	1
인천	26.22	9	23.01	9	22.31	6	23.96	8
광주	29.61	4	26.41	4	24.78	4	27.03	4
대전	28.47	6	26.80	3	25.05	2	26.95	5
울산	8.96	16	8.50	16	8.12	16	8.56	16
경기	26.38	8	23.20	8	20.84	9	23.44	9
강원	27.14	7	23.57	7	21.40	8	24.20	7
충북	23.71	10	20.22	10	17.70	10	20.57	10
충남	18.49	15	13.63	15	11.51	15	14.40	15
전북	28.65	5	24.42	6	22.28	7	25.33	6
전남	20.23	14	16.55	14	14.59	14	17.33	14
경북	23.40	12	18.34	12	16.41	13	19.49	12
경남	23.55	11	19.35	11	17.55	11	20.20	11
제주	31.36	2	28.56	2	24.96	3	28.47	2

❍ 전라북도의 경우 고용계수는 25.33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역간 비교시 6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도 단위에서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를 단순히 해석하면 전라북도의 산업이 고용창출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선 고용탄력성 분석 결과와 같이 고려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 고용탄력성은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고용계수가 높다는 것은 현재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가 노동집약형 산업이지만, 신규 고용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따라서 전라북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제3절 종합 분석

1. 분석 개요

○ 지역 경제 성장을 평가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GRDP 성장률이나 사업체별 종사자수의 증가율 등이다.

○ 하지만 위의 지표들은 경제의 규모가 클수록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작아지기 때문에 지역간 비교시 경제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유리한 지표이다. 따라서 지역간 비교시에 적절한 지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라고 판단된다.

○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표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경제성장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frac{GRDP_i}{P_i} = \frac{GRDP_i}{L_i} \times \frac{L_i}{N_i} \times \frac{N_i}{P_i}$$

P_i : 인구, L_i : 취업자수, N_i : 생산가능인구

$\frac{GRDP_i}{L_i}$: 노동생산성, $\frac{L_i}{N_i}$: 고용률, $\frac{N_i}{P_i}$: 생산가능인구 비율

○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지역의 경제성장 요인을 노동생산성과 고용률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적용하여 노동시장 공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경제성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경제성장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 지표가 높을수록 노동 공급 시장의 크기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어 신규 투자 혹은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에 정(+)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위 식을 편미분할 경우, 1인당 GRDP의 변화율은 노동생산성의 변화율과 고용률의 변화율과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변화율의 합과 같아진다[7].

○ 이렇게 될 경우, 1인당 GRDP의 증가에 기여하는 세 요인 중에서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 지역경제 발전이 위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노동생산성과 고용률은 서로 상충되는 경향[8]을 보이고 있어 지역경제 성장이 높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고용률은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2. 분석 결과

▌지역경제 성장기여율 분석

○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별 1인당 GRDP 증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3.42%이었으며, 이 기간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으로 연 평균 6.02% 성장하였으며,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2.10% 성장에 그쳤다.

○ 전라북도의 1인당 GRDP 증가율은 3.32%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2.62%이었으며 동기간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으로 연평균 5.02% 증가하였으나, 대전광역시는 연평균 1.15% 증가하는데 그쳐 가장 낮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보였다.

○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2.5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7) $A = B \times C \times D$ 식의 경우 양변을 로그로 치환하면 $\ln A = \ln B + \ln C + \ln D$로 바뀌게 되며, 양변을 편미분하면 $\frac{dA}{A} = \frac{dB}{B} + \frac{dC}{C} + \frac{dD}{D}$ 가 되며 각 항은 해당 변수의 변화율을 의미함

8) 조인숙(2014)외 여러 연구 문헌에서 노동생산성과 취업률간의 상관관계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 고용률 변화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0.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0.50% 증가한 반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도로 오히려 0.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0.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개선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0.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볼 경우 광주광역시가 연평균 0.86%씩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라남도는 0.35%씩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가장 적게 증가하는 지역이다.

○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연평균 0.58%씩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지역별 지역경제 성장기여율 분석 결과(2000년~2020년)

(단위 : %)

	1인당 GRDP	노동생산성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비율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성장 기여율	영평균 성장률	성장 기여율	연평균 성장률	성장 기여율
전국	3.42	2.62	76.70	0.14	4.14	0.64	18.67
서울	2.89	2.07	71.56	0.21	7.19	0.60	20.81
부산	3.34	2.70	80.81	0.06	1.93	0.56	16.84
대구	2.85	2.07	72.59	0.23	8.01	0.54	18.97
인천	3.02	1.86	61.51	0.37	12.46	0.76	25.54
광주	3.13	1.74	55.70	0.50	16.13	0.86	27.66
대전	2.24	1.15	51.49	0.39	17.55	0.68	30.61
울산	2.10	1.19	56.59	0.15	7.18	0.75	35.91
경기	3.47	2.63	75.79	0.03	0.98	0.79	22.75
강원	2.85	2.44	85.62	-0.16	-5.80	0.57	19.92
충북	4.12	3.28	79.58	0.26	6.27	0.56	13.60
충남	6.02	5.02	83.49	0.21	3.57	0.73	12.25
전북	3.32	2.50	75.28	0.22	6.79	0.58	17.45
전남	3.70	3.37	91.15	-0.03	-0.92	0.35	9.50
경북	4.34	3.94	90.89	-0.15	-3.50	0.53	12.32
경남	3.89	3.09	79.57	0.13	3.43	0.64	16.50
제주	3.27	2.76	84.21	-0.01	-0.21	0.51	15.64

〈표 3-10〉 지역별 지역경제 성장기여 요인 순위 비교(2000년~2013년)

	1인당 GRDP	노동생산성		고용률		노동시장비율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성장 기여율	영평균 성장률	성장 기여율	연평균 성장률	성장 기여율
서울	12	11	12	8	5	8	6
부산	7	7	6	11	11	11	10
대구	14	12	11	5	4	13	8
인천	11	13	13	3	3	3	4
광주	10	14	15	1	2	1	3
대전	15	16	16	2	1	6	2
울산	16	15	14	9	6	4	1
경기	6	8	9	12	12	2	5
강원	13	10	3	16	16	10	7
충북	3	4	7	4	8	12	13
충남	1	1	5	7	9	5	15
전북	8	9	10	6	7	9	9
전남	5	3	1	14	14	16	16
경북	2	2	2	15	15	14	14
경남	4	5	8	10	10	7	11
제주	9	6	4	13	13	15	12

- ❍ 각 요소의 1인당 GRDP 성장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전국적으로 볼 경우 노동생산성이 76.7%, 고용률이 4.14%,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18.7%를 차지하여 노동생산성이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이는 지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1인당 GRDP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전체 일자리 총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 ❍ 광역시 단위와 도 단위의 지역간 요인 비교를 할 경우, 대체적으로 광역시 단위에서는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고용률의 성장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지역들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노동생산성보다는 서비스업의 성장에 따른 일자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률 향상이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도 단위의 경향을 보면, 대체적으로 노동생산성에 의한 지역경제 성장 효과가 전국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 단위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적효과 및 기술력 향상에 의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1인당 GRDP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전라북도의 경우 도 단위의 경향과 다르게, 노동생산성에 의한 경제성장 효과보다는 고용률 성장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까지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이 되지 못한 영향이 크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는 산업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개인 지원형 서비스업보다 기업 지원형 서비스 등의 제조업 전후방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제조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4 장

전라북도 경제 통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Jeonbuk Institute

제1절 국내 통계 현황
제2절 경기종합지수 작성 사례
제3절 기존 통계자료 한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제4장 전라북도 경제 통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제1절 국내 통계 현황

1. 통계청 및 한국은행 승인 통계 현황

○ 2020년 5월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는 총 1,201개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전체의 49.2%인 591개이다.

〈표 4-1〉 국내 기관구분별 승인통계 현황

구 분	작성기관 수	작성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계	**425**	**1201**	**92**	**1109**	**527**	**476**	**198**
정부기관	**307**	**1000**	**75**	**925**	**415**	**415**	**170**
중앙행정기관	47	409	58	351	208	152	49
- 통계청	1	65	37	28	39	2	24
- 이외 기관	46	344	21	323	169	150	25
지방자치단체	260	591	17	574	207	263	121
지정기관	**118**	**201**	**17**	**84**	**112**	**61**	**28**
금융기관	7	21	10	11	8	5	8
공사/공단	34	60	0	60	25	33	2
연구기관	29	47	2	45	34	4	9
협회/조합	25	33	3	30	26	5	2
기타기관	23	40	2	38	19	14	7

자료 : 통계청, 승인통계현황(2020.5.23. 기준)

○ 전라북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7개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은 수를 생산하고 있고 경기종합지수를 제외하면 기본통계,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등 시· 도 공통으로 작성하는 통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 다른 시도의 경우, 지역의 산업 경제 특성에 맞게 추가로 조사가공하여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지역 여건을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은 해양분

야에 특화된 통계지표들을 별도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인구, 복지 정책에 따라 노인, 영유아, 청년 등 특성화된 자료들을 발표하여 지역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정책 수립 차원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자료는 사업체조사, 지역내총생산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여 지역 경기의 순환성을 파악하거나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춰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표 4-2〉 광역지자체별 작성 승인통계 현황

구 분	작성 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서울	9	1	8	3	3	3
부산	15	1	14	7	3	5
대구	11	1	10	5	2	4
인천	8	1	7	2	2	4
광주	8	1	7	3	2	3
대전	10	1	9	2	2	6
울산	10	1	9	2	2	6
세종	9	1	8	4	3	2
경기	9	1	8	3	2	4
강원	8	1	7	2	2	4
충북	8	1	7	2	2	4
충남	8	1	7	2	2	4
전북	7	1	6	2	2	3
전남	8	1	7	2	2	4
경북	9	1	8	3	2	4
경남	7	1	6	2	2	3
제주	12	1	11	6	2	4

자료 : 통계청, 승인통계현황(2020.5.23. 기준)
비고 :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통계(기본통계, 사업체조사, 사업조사, 장래인구추계, 지역내총생산,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 1,201개의 작성 통계 중에서 지역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는 575개이며, 시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계는 332개이다.

〈표 4-3〉 통계 부문별 승인통계 현황

구 분	작성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계	**1201**	**92**	**1109**	**527**	**476**	**198**
1. 인구	9	3	6	1	4	4
2. 사회일반	23	2	21	19	2	2
3. 범좌안전	30	0	30	10	20	0
4. 노동	35	6	29	21	10	4
5. 소득·소비·자산	6	4	2	6	0	0
6. 보건	28	1	27	14	11	3
7. 복지	28	1	27	4	11	3
8-1. 교육·훈련	15	2	13	10	4	1
8-2. 문화·여가	21	0	21	13	6	2
9-1. 주거	15	2	13	4	7	4
9-2. 국토이용	10	1	9	4	5	1
10-1. 경제일반·경기	11	2	9	6	0	5
10-2. 기업경영	25	3	22	18	1	6
11-1. 농림	41	7	34	26	12	3
11-2. 수산	12	2	10	8	4	0
12. 광업·제조업	17	3	14	13	2	2
13-1. 건설	19	2	17	11	8	0
13-2. 교통·물류	27	2	25	7	19	1
14-1. 정보통신	33	3	30	29	2	2
14-2. 과학·기술	20	1	19	15	3	2
15. 도소매·서비스	21	3	18	20	0	1
16-1. 임금	11	3	8	10	1	0
16-2. 물가	9	4	5	5	1	3
17. 국민계정	23	5	18	0	0	23
18. 정부·재정	21	1	20	4	17	0
19-1. 금융	15	1	14	5	10	0
19-1. 무역·국제수지	17	4	13	1	6	10
20. 환경	37	4	33	14	20	3
21. 에너지	15	1	14	7	6	2
22. 지역통계	575	17	558	207	263	105

자료 : 통계청, 승인통계현황(2020.5.23. 기준)

주 : 2020.5.22.부터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통계분류가 16개 분류체계에서 22개 분류체계로 개편됨

❍ 지역 통계 중에서 29.2%인 168개 통계 지표는 공표 주기가 1년 초과이거나 비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통계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단기간의 지역 여건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월 단위나 분기 단위의 자료는 4.0% 수준에 그쳐 지역 연구에서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4-4〉 통계 부문별 승인통계 현황

구 분	작성통계수	월 이하	분기	반기	연간	1년 이상
합계	**1201**	**112 (9.3%)**	**30 (2.5%)**	**20 (1.7%)**	**781 (65.0%)**	**258 (21.5%)**
22. 지역통계	575	17 (3.0%)	6 (1.0%)	4 (0.7%)	380 (66.1%)	168 (29.2%)

자료 : 통계청, 승인통계현황(2020.5.23. 기준)
주 : "1년 이상"은 부정기 및 수시 등이 포함됨

2. 지역 통계 문제점에 대한 선행 연구

○ 선행 연구들을 보면, 지역 경제 및 산업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통계자료들이 많이 부족하고 중장기 경제 및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4-5〉 지역 통계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연구자	주요 연구 내용
조택희 (2005)	**- 지역거시계량모형으로 살펴본 지역통계의 문제점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거시계량모형에 필요한 지역통계의 부족을 지적** - 적절한 지역통계시스템의 구축, 조직과 인력, 재정의 확대, 지역통계의 양적·질적 개선을 제시
김용렬, 김경덕 (2008)	- 각 지역 농촌통계를 외국 사례와 비교한 결과, 양적·질적인 면에서 부족하고 농촌통계를 주도한 주체가 없음을 지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한국농촌 지역 통계 DB 구축방안을 제시
한수철, 전수영, 진서훈 (2009)	- 지역통계자체의 부족, 특히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통계 부족으로 효과적인 지역전략산업육성 정책수립이 어려움을 지적 - 인적·물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공급해야 한다고 주장
한수철 (2009)	- 외국의 통계조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계협력체계, 각 시도별 4대 전략산업 및 지역특성통계 등 비교 분석 - 지역통계 발전방안으로 통계담당인력 확충, 지역통계의 질적·양적 확충, 통계청의 지역통계 개발지원에 대한 적극 참여, 관·학 상호협력체제 구축 및 통계인식 제고를 제시
김을식 (2010)	- 미국, 일본, 영국의 지역고용통계 분석결과와 OECD의 6가지 통계품질을 바탕으로 지역고용통계의 개선방안 도출 - 지역의 통계생산 능력 제고, 세부지표 개발과 지역세분화를 통한 관련성 제고, 통계조사 주기조정 및 매뉴얼 보급 등 제시
박현정, 홍현정 (2010)	- 지역통계가 다른 나라 대비 많이 부족 **- 특히 소지역단위의 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다고 지적하면서 소지역 지역통계 강화를 주장**
김영희 (2012)	- 충청남도 내 18개 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지역통계공표에 대한 현황을 접근방식에서부터 제공하는 형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김영순 (2012)	- 통계청은 녹색성장지표를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는 이에 대한 지표가 없다는 문제점 제기 - 녹색성장지표 34개를 개발하여 경상남도에 맞는 지역통계지표를 제시
김지영, 신현길 (2014)	- 지역통계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통계자원인 행정통계 활용, 지역통계 DB구축,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등을 제시

연구자	주요 연구 내용
장온순 (2014)	- 통계자료에서 제외되고 있는 행정통계를 통계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 행정통계를 증거로 하는 정책결정의 양태, 행정통계가 통계자료가 되기 위한 품질 요건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우석봉, 이종필 (2015)	- 부산 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 등 최근 변화된 부산의 환경에 적합한 관광통계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

박정수(2017)의 p122 내용 참고하여 작성

○ 박정수(20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통계의 주제별 빈도와 시군구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주제별 빈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건설·주택· 토지 분야와 인구· 가구 분야의 통계가 시군구 단위로 많이 제공되는 반면, 산업· 경제 측면의 자료들은 상대적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파악할 수 없다.

○ 통계 수요 측면에서 신규 개발이 필요한 통계[9], 지역단위 세분화가 필요한 통계[10], 이미 생산 중인 통계[11]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신규개발이 필요한 통계가 199종, 지역단위 세분화가 필요한 통계 144종, 기작성 통계에 대한 수요가 188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개발이나 지역단위 세분화가 필요한 통계들은 대부분 광공업· 에너지, 물가· 가계, 경기· 기업경영, 도소매· 서비스 등 지역 경제 관련 주제로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 산업 및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수립에 있어 자치권이 강화될수록 이러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표 4-6〉 주제별 전체 자료와 지역 자료의 상대 빈도

주제	전체 자료 상대빈도(A)	지역 자료 상대빈도(B)	B-A
1. 인구·가구	2.63	16.06	13.43
2. 고용·노동·임금	5.74	4.66	-1.08
3. 물가·가계	0.96	0.17	-0.79
4. 보건·사회·복지	19.77	20.21	0.44

9) 통계수요에 맞는 승인통계가 생산되지 않은 경우

10) 승인 통계는 있으나 공표범위가 전국, 광역인 경우로 하위 단위 통계 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

11) 이미 통계가 작성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생산 여부를 모르는 경우로 지역 통계 활용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주제	전체 자료 상대빈도(A)	지역 자료 상대빈도(B)	B-A
5. 환경	0.69	0.69	0.00
6. 농림어업	16.95	5.18	-11.77
7. 광공업·에너지	1.51	1.04	-0.47
8. 건설·주택·토지	3.89	37.48	33.59
9. 교통·정보통신	7.66	0.00	-7.66
10. 도소매·서비스	2.57	0.35	-2.22
11. 경기·기업경영(사업체)	8.98	3.97	-5.01
12. 국민계정·지역계정·국가자산(국부)	0.78	0.35	-0.43
13. 재정·금융·보험	8.12	0.17	-7.95
14. 무역·국제수지	0.15	0.00	-0.15
15. 교육·문화·과학	14.35	0.35	-14.00
16. 행정	5.24	9.33	4.09
Total	100	100	0.00

박정수(2017)의 p127 내용 참고하여 작성

주 : 2020.5.22.부터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통계분류가 16개 분류체계에서 22개 분류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 분류체계에 맞게 재계산할 예정

- ❍ 하지만, 기존 통계를 세분화할 경우 대부분의 전국 단위 통계들이 전수 조사가 아닌 상황에서 지역별로 특성이 반영되는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한 가공 통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지역별로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 지역통계 생산을 위한 자료는 센서스 자료, 전국 단위 대규모 통계조사 자료,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조사 자료, 행정자료 및 공공데이터, 빅데이터로 구성되는데, 이들 기존 자료들을 활용하여 가공통계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 기작성 통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통계자료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지역 통계 이용 제고를 위한 노력도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지역 통계 활용 연구 사례

- ❍ 전북연구원이 지금까지 지역 경제 및 산업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물들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 첫 번째 유형은 지역 관련하여 발표되는 통계 자료들을 종합 정리하여 일정 주기에 맞춰 통계 자표들의 변화를 토대로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는 유형으로 2010년부터 수행해온 지역통계 TFT가 대표적인 연구 수행 사례이다.
- ❍ 해당 연구는 2010년부터 지속하여 운영되어 분기별로 꾸준히 지역통계 DB를 구축하고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나, 연구 참여진의 변경으로 질적 수준의 유지가 어려웠으며, 발간물에 대한 차별성[12] 및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연구 수행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웠다.
- ❍ 두 번째 유형은 신규 통계 작성 연구로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 가공하여 지역 분석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 유형이며, 대표적인 연구 사례는 일자리 질 지표 구축 연구와 위성계정/사회계정행렬 작성 등이 있다.
- ❍ 산업 경제 분야에서 전북연구원으로 연구 의뢰가 많이 오는 분야가 특정 사업 시행이나 경제적 이슈에 대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으로 기존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간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투입산출모형을 활용했다.
- ❍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2013년 기준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 계정[13]을 만들고자 했다.

---

12) 전라북도 산업 경제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기관은 전북도청, 한국은행과 전북연구원으로 각각 발표하는 통계 항목들 중에 일부는 겹치고 있음

13) 2019년에 수행한 「전라북도 지역소득 역외유출 발생 요인 분석」을 통해 한국은행의 자료를 활용하여 RAS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함

❍ 또한 산업연관표를 확장하여 관광산업에 특화한 위성계정과 가계부문을 포함한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기도 했다.

❍ 이 외에 도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수준 및 사회적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세 번째 유형은 기존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산업· 경제 구조의 변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 유형이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 수요 발생에 따라 연구원 자체 연구로 진행하였으며, 단발성 기초 연구 성격이 강했다.

❍ 네 번째 유형은 기존의 시계열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거시 경제 모형을 구축하거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단기 예측을 위한 CGE 모형을 만드는 등의 지역 경제 모형을 구축하는 연구 유형이다.

❍ 해당 연구 유형은 개별 연구자의 전공을 살려 연구원 자체 연구로 진행된 경우가 많으나, 모형 구축 이후 연구원 차원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들 모형의 통합 관리와 이용률 제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다섯 번째 유형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 이외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여 지역 통계 체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유형이다. 이 유여의 연구 과제들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 중에서 지역 통계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정통계나 연금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기존 승인 통계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공 통계 작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 4-7〉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지역 통계 활용 연구 리스트

연도	과제명	연구 유형
2009	- 전라북도 관광산업 규모예측을 위한 지역 관광위성계정 구축	신규 통계 작성
2010	- 국가예산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영향 분석
	- 전북의 산업구조변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영향 분석
	- 중앙 정부 정책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 개발	계량 모형
	- 지역통계TFT	DB 구축 영향 분석
2011	- 전라북도 행정통계의 체계적 관리 방안 -도정 대표통계를 중심으로-	통계 관리
2014	- 인구고령화가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영향 분석
2015	- 전라북도 일자리의 질 지표 구축 및 분석 연구	신규 통계 작성 통계 관리
	- 산업집적의 공간패턴과 전북지역 산업구조 변동 연구	영향 분석
	- 전라북도 지역거시계량경제모형 개발 연구 -미래경제성장전략 수립 기초연구	계량 모형
	- 전라북도 경제 분석을 위한 사회계정행렬 작성을 위한 기초 연구	신규 통계 작성
	- 새만금개발 및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모형 구축 연구	계량 모형
	- 전북지역 경기동행종합지수 개편 연구	영향 분석 통계 관리
2016	- 전라북도 경기변동요인의 구조적 분석 연구	영향 분석
	- 전라북도 KTX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영향 분석
2017	- 전라북도 행복지표 조사 및 정책연계 방안	신규 통계 작성 통계 관리
	- 국민연금데이터를 활용한 전북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안	통계 관리
2018	- 전라북도 성장 잠재력 측정 연구	영향 분석 계량 모형
2019	- 전라북도 지역소득 역외유출 발생 요인 분석	신규 통계 작성 영향 분석
	-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신규 통계 작성

❍ 지금까지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지역 통계 활용 연구들을 보면, 단발성 연구 성격이 강했으며, 새로운 통계 지표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후 승인통계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등 후속 과정이 미비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또한, 계량 모형 구축으로 거시적인 분석 체계를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내에서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제2절 경기종합지수 작성 사례

1. 경기순환예측 유형

○ 전국 단위에서 경기지수는 필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작성되어 발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 국가 및 지역의 경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종합지수가 발표되고 있으며, 경기종합지수는 선행, 동행, 후행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생산 측면에서 기업실사를 통해 작성되는 기업실사지수로서 기업경기조사, 기업경기동향조사, 기업경기전망조사, 기업경기실사지수, 산업경기전망조사,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조사 등이 발표되고 있다. 소비 측면에서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평가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이 있다.

〈표 4-8〉 기업경기지수 유형

지수명	발표기관	조사대상	조사내용
기업경기조사지수	한국은행	제조업(중분류 21개업종) 및 비제조업(대분류 11개 업종)	수준 판단을 위해 업황 등 5개 항목, 변화방향 판단을 위해 신규수주, 생산, 매출 등 8개 항목
기업경기동향지수	전국경제인 연합회	산업별로 전체산업, 업종별로 매출액순 600대 업체	내수, 수출, 투자, 자금사정, 재고, 고용, 채산성
기업경기전망지수	대한상공회의소	상시종업원수 10인 이상인 제조업체	전반적인 경기실적 및 전망, 생산, 매출, 설비투자 등 항목별 경기실적 및 전망, 경영애로요인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	산업연구원	전국 제조업체 및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매출액, 국내시장출하, 수출 등 11개 항목
KDB 산업 경기전망지수	한국산업은행	제조업 중분류 21개업종	사업개황, 자금사정, 생산 등 판단조사 12개 항목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중소기업은행	종업원수 5~300인 이하의 중소제조업	전반적인 경기, 수주, 채산성, 판매, 고용, 자금사정, 설비투자 및 가동률, 경영 애로요인

김봉진(2009)의 p7 내용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추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2020년 시점 기준으로 업데이트 예정

○ 기업실사를 통해 작성되는 경기지수를 통상 기업경기조사(BSI)라고 하는데, 일종의 비계량적 지표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가의 현재 경기 수준에

대한 판단이나 향후 경기 전망 등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방법이다.

○ 주로 경기의 호전 또는 악화와 같은 경기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기예측기법으로 설문조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기간 조사항목 등이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BSI지수는 경기활동 주체로서 기업가를 직접 설문조사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현실을 즉각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기업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기업체간 상대적 중요도를 소홀히 하여 선도 기업의 경기효과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경기변동을 왜곡되게 해설할 여지가 있다.

$$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 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 수})}{\text{전체 응답업체 수}} \times 100 + 100$$

○ 소비 측면에서의 대표적인 경기지수는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와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전망조사가 있다.

○ 소비자동향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작성 발표하고 있으며, 생활형편, 가계수입, 소비지출 등 본인의 경제사정에 대한 것과 경기, 금리, 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작성된다.

$$CSI = \frac{\begin{array}{l}(\text{매우좋음} \times 1.0 + \text{약간좋음} \times 0.5 - \\ \text{약간나쁨} \times 0.5 - \text{매우나쁨} \times 1.0)\end{array}}{\text{전체 응답자 수}} \times 100 + 100$$

○ 소비자전망조사는 통계청에서 월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평가지수와 소비자기대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 소비자평가지수는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판단 등을 평균한 지수로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및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의미한다.

○ 소비자기대지수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및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의미한다.

2. 광역지자체 단위의 경기종합지수

○ 통계청에서는 경기종합지수를 선행, 동행, 후행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는 대부분 동행종합지수를 작성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선행종합지수를 추가하여 작성하고 있다.

○ 현재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승인통계로 인정받고 있다.

〈표 4-9〉 지역별 경기동행종합지수 작성 현황

지역	발표 여부	활용지표 수	활용지표
서울		6	서비스업취업자수, 서비스업활동지수, 건설착공면적,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예금은행대출금,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부산	○	8	비농가취업자수, 광공업생산지수, 생산자출하지수, 전력판매량,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소비재출하지수, 수출액, 수입액
대구	○	8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생산자출하지수, 소비재출하지수, 중소제조업가동률, 실질수출액, 실질수입액,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인천	○	8	비농가취업자수, 광공업생산지수, 전력판매량,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수출액, 수입액, 컨테이너처리량
대전	○	7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생산자출하지수, 전력사용량, 수출액, 수입액, 신규차량등록대수
광주	○	8	광공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건축착공면적, 중간재출하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대형소매저판매액지수, 비은행취급기관여신액, 수출액
울산	○	6	비농가취업자수, 광공업생산지수, 생산자출하지수, 전력판매량,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수출액
경기		6	비농가취업자수, 광공업생산지수, 생산자출하지수,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수출액, 수입액
강원	○	6	광공업생산지수, 비농링어업취업자수, 생산자제품출하지수, 전력판매량,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수출액
충북	○	5	비농가취업자수, 광공업생산지수, 전력판매량,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수입액
충남	○	6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판매전력량, 수출액, 수입액,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경북	○	7	비농가취업자수, 제조업업황BSI, 생산자제품출하지수(중간재), 제조업전력사용량, 대형마트판매액지수, 수입액, 수출액

지역	발표 여부	활용지표 수	활용지표
경남	○	8	비농가취업자수, 광공업생산지수, 생산자출하지수, 내수출하지수, 전력판매량, 건설착공면적, 요구불예금회전율, 수입액
전북	○	7	전력판매량, 비농림어업취업자수, 광공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광공업출하지수, 건축착공면적, 수입액
전남	○	6	광공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실질수출액, 실질수입액
제주	○	6	취업자수, 관광객수, 광공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비제조업 업황), 농수축산물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통계청 자료 참고

주 : 서울(2006), 경기(2008)는 지자체 연구기관에서 경기동행종합지수를 개발하였으나, 통계청 지역통계에는 빠져 있음

❍ 지역 차원의 경기선행종합지수는 10개 지역에서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는 통계청의 승인통계로 지정받지 않은 상황이다.

〈표 4-10〉 지역별 경기선행종합지수 작성 현황

지역	발표 여부	활용지표 수	활용지표
부산	○	7	중간재출하지수, 한국은행CSI, 건축허가면적, 자본재수입액, 순상품교역조건(전국), 코스피지수, 시설자금대출금
대구	○	6	건축허가면적, 중간재출하지수, 순상품교역조건(전국), 재고순환지표, 주가지수, 시설자금대출금
인천	○	7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자동차등록대수비율, 건축허가면적, 순상품교역조건(전국), 금융기관유동성(전국), 장단기금리차
대전	○	7	신규구직자수, 비제조업업황BSI, 생활형편CSI, 소비자심리지수, 어음부도율,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여신, 주가지수
경기		7	재고순환지수(제조업), 생산자제품재고(중간재), 건축허가면적, 실질자본재수입액, 코스피지수, 예금은행실질운전자금 대출금, 국제원자재가격지수
강원	○	6	신규구인인원, 자본재출하지수, 재고순환지표, 건축허가면적, 자본재수입액, 종합주가지수
충북	○	6	재고순환지표, 자본재출하지수, 건축허가면적, 예금은행대출금, 자본재수입액, 구인구직비율
충남	○	7	신규구인인원, 제조업재고순환지표, 비제조업 자금사정 실적, 주가지수, 반도체 수출입물가비율, 자본재 수입액, 중간재출하지수

지역	발표 여부	활용지표 수	활용지표
경남	○	8	구인구직비율, 재고순환지표, 중간재출하지수, 건축허가면적, 자본재수입액,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코스피지수, 예금은행대출금
제주	○	5	전국동행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심리지수, 건출허가면적

통계청 자료 참고

주 : 경기(2013)는 지자체 연구기관에서 경기선행종합지수를 개발하였으나, 통계청 지역통계에는 빠져 있음

- ❍ 지역별로 지역에 미치는 산업 구조 및 성격이 다르고 각 경제요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경기 국면과 지역 단위의 경기 국면은 다를 수 밖에 없다.
- ❍ 이러한 이유로 지원 차원에서 지역의 경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 ❍ 1994년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1995년 부산 및 충북 지역의 경기동행종합지수가 지역 연구원에 의해 개발되었다.
-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지역 경기종합지수의 개발과 분석」, 1994
-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지역 경기종합지수 개발 및 경기분석」, 1995
- ❍ 충북개발연구원, 「충북지역 경기지수 개발 및 분석」, 1995
- ❍ 2000년대 초반까지는 통계청의 도움을 받아 경기선행지수를 발표한 지역이 있었으나 그 효용성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된 연구결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경기종합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 ❍ 지역별 경기동행지수에 비해 선행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된 이유는 정확한 경기 예측력을 지닌 선행지수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통계자료 미비 및 짧은 시계열 자료 DB 구축으로 선행성 지표를 찾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또한 선행지수는 동행지수의 추세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 각 지역별로 경기선행종합지수 작성 연구 결과들을 보면, 지수 작성에 활용되는 지표들의 구성들이 각기 다르며, 같은 지표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선행지표의 선행기간이 각기 달라 전북 선행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표 선정부터 선행기간 분석, 기존 동행종합지와의 정합성 등을 따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3절 기존 통계자료 한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 ❍ 기존 통계 자료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 차원에서 지역 통계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크게 5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 첫 번째는 지역마다 어떤 지역통계가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목록화하여 공통된 통계지표를 추출하고 지역마다 특성화된 통계지표를 더하는 지역통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방안이다.
- ❍ 현재 연구원에서 검토 단계에 있는 NICE 평가정보, 전북 TP와의 네트워크를 체결하여 전라북도 소재 기업들에 대한 고용 및 재무 정보와 지역의 기업 대상 R&D 지원 자료를 상호 교환하여 기업 데이터를 결합시켜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업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툴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 두 번째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행정자료,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등을 연계하여 지역통계로 가공 작성하여 공식통계로 승인받는 방안으로 현재 전라북도에 작성하지 않고 있는 선행경기종합지수를 우선 작성하고 동행경기종합지수와 같이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관한 경기지수를 지역 차원에서 개발하여 공식 통계롤 승인받고 이를 시계열로 축적하여 행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세 번째는 전국 단위로 작성되는 통계를 시군구별로 작성하는 양적 확장 방식으로 대표적인 자료가 시군구 단위의 지역산업연관표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산업연관표는 광역자지단체 기준으로 구분되어 작성되고 있으며, 당초 5년마다 작성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상당히 많은 인원과 비용이 투입되다 보니 계획된 일정에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현재 강원도와 충청남도에서 도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지역의 경제 효과 분석 모형으로 활용하고 있다.
- ❍ 전북연구원에서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시군 단위의 LQ 값을 대입하여 약식으로 시군 단위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경제효과 분석에 사용하고 있다.

- ❍ 하지만 이 방식의 경우 시군 단위의 교류 관계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간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 네 번째는 지역 정책의 수립과 성과 측정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이나 지역 축제와 같은 지역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현재 2차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고용위기진단지표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당장 전 산업의 공위기진단자표를 작성하는 것보다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에 초점을 맞춰 산업 육성 및 관리 차원에서 고용위기지표를 세분화하여 추진하되, 점점 대상 산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 ❍ 다섯 번째는 현재 분기별로 전북경제동향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주요 이슈에 맞춘 다양한 포맷의 경제 지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 ❍ 위 5가지의 방안 중에서 3차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본 연구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은 첫째, 둘째, 넷째와 여섯째 항목이 될 것이다.
- ❍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전라북도 차원에서 작성하는 있는 통계 지표들은 다른 시도와 공통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통계자료로 통계청 자료와 더불어 지역 통계 분석을 할 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특화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제한적인 분석만 가능한 상황이다.
- ❍ 따라서 전라북도의 중장기 산업[14] 및 경제[15] 정책 방향에 맞춰 모니터링해야 할 산업· 경제 분야에 따른 통계지표를 추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

14)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 등 향후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산업 분야와 연구개발 특구 및 창업과 관련된 정책

15) 일자리 질적 수준이나 고용위기 진단과 관련한 정책

❍ 단, 향후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는 전라북도의 경제·산업 관련 통계 지표의 관리 및 해석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자 하며, 통계 작성 관련해서는 가공통계 위주로 할 계획이며, 조사 및 보고 통계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 최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센터가 전북대에 설치되었고, 국민연금공단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가능과 전라북도청의 정보화총괄과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다양한 통계자료를 연계하여 신규 지역통계를 가공하여 기존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산업 경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하지만, 다양한 관점과 방식에서 지역의 통계 자료 DB를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통계 DB를 활용하는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DB 구축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 따라서 구축된 통계 DB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 수요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민철(2012), 건설경기 종합지수의 개발 및 건설경기 진단, 건설경제산업연구 3권 1호,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김봉진(2009), 광주지역 경기종합지수 개발, 광주전남연구원

김봉한 외 2인(2006), 지역별 경기선행지수의 개발에 관한 연구, 경제발전연구 Vol.12 No.2, 학국경제발전학회

김영순(2010), 경남지역 경기동행 종합지수 개발, 경남연구원

김영순(2011), 경남경제통계 활성화 방안과 지표 구축-선행지수개발중심으로-, 경남연구원

김영순(2012), 경남경기선행지수 수정개발, 경남연구원

김양중(2014),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개편 보고서-충남 경기선행종합지수 개발-, 충남연구원

김을식(2011), 경기도 지역고용종합지수 개발 및 분석, 경기연구원

김을식(2010), 지역노동시장의 성과 분석: 고용종합지수 개발 및 적용, 경기연구원

김정훈(2013), 경기도 경기동행지수 개편 및 경기선행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경기연구원

김정훈 외 1인(2014), KOSTAT-CIS를 이용한 경기도 경기선행지수의 작성 및 활용, 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경제통상학회

김종구(2019), 지역 경기동행종합지수 변동이 지역 실업률 변동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1),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정수(2017), 지역통계 수요분석과 대응전략, 사회과학연구논총 33(2)

박종문 외 2인(2011), 무역경기지수(TBI)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5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박희석(2006), 서울시 경기종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서옥순(2016), 부산지역 고용동향 및 부산고용지수 개발과 활용, BDI 일자리 브리프 Vol.2, 부산발전연구원

엄근용 외 1인(2018), 지역별 주택경기지수 작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3(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윤여창 외 2인(2015), 중소기업 경기예측 모형 및 지수에 관한 연구, 응용통계연구 28권 1호, 한국통계학회
이강진(2016) 전북지역 경기동행종합지수 개편 연구, 전북연구원
이동회 외 1인(2010), 창업동향지수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Vol.11 No.7, 한국산학기술학회
이춘근 외 1인(2001) 대구지역 경기선행종합지수의 개발과 분석, 대구경북연구원
이태열(2002), 철강경기선행지수의 개발, POSRI 경영경제연구 2권 1호, 포스코경영연구원
임소진(2005), 제주지역 경기선행종삽지수의 개발, 제주연구원
백운성 외 1인(2008), 충남경기종합지수의 개편에 관한 연구, 충남연구원
조택희(2007), 충북 경기종합지수 개편 및 분석-동행지수 개편 및 선행지수 개발-, 충북연구원
주수현 외 1인(2004), 부산지역 경기선행종합지수 개발 및 분석, 부산연구원
지우석(2013),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한창엽 외 1인(2016), 호텔산업 경기 동향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8(9), 한국관광레저학회
황현식(2016), [정책제안]지역통계 활성화가 필요하다, 월간 공공정책 127

맺음말

부록

1. 지역별·연도별 재화 및 서비스 이출입 현황

[표 부록-1] 지역별 재화 및 서비스 이출입 현황(2010년)

단위 : 십억원

	국내			해외			총 순이출
	중간재 순이출	최종재 순이출	국내 순이출	수입	수출	해외 순이출	
서울	9,345	44,035	53,381	61,879	59,112	-2,767	50,613
부산	-329	-5,545	-5,875	23,182	19,323	-3,860	-9,734
대구	-112	-7,468	-7,580	10,343	7,418	-2,926	-10,506
인천	4,907	-5,364	-457	33,621	29,519	-4,102	-4,559
광주	-6,039	-1,662	-7,702	7,581	11,830	4,250	-3,452
대전	-3,277	-1,915	-5,192	6,932	4,516	-2,416	-7,609
울산	2,324	4,123	6,447	70,841	89,792	18,951	25,398
경기	-22,530	-12,405	-34,935	118,381	131,685	13,304	-21,631
강원	-3,575	-2,987	-6,562	6,208	2,637	-3,570	-10,132
충북	-224	-2,382	-2,605	16,364	16,949	585	-2,020
충남	13,023	-188	12,834	54,684	54,997	313	13,147
전북	**-4,111**	**473**	**-3,638**	**11,485**	**9,537**	**-1,948**	**-5,586**
전남	21,451	-5,323	16,128	50,441	39,668	-10,773	5,355
경북	-2,922	-3,544	-6,466	45,542	63,891	18,348	11,883
경남	-6,632	171	-6,462	41,245	55,957	14,712	8,250
제주	-1,299	-18	-1,317	2,083	1,119	-964	-2,281

[표 부록-2] 지역별 재화 및 서비스 이출입 현황(2011년)

단위 : 십억원

	국내			해외			총 순이출
	중간재 순이출	최종재 순이출	국내 순이출	수입	수출	해외 순이출	
서울	9,191	46,648	55,839	65,839	60,581	-5,258	50,581
부산	-1,713	-6,236	-7,949	24,257	18,970	-5,287	-13,237
대구	-490	-7,917	-8,407	11,310	8,192	-3,118	-11,525
인천	4,431	-6,236	-1,804	37,275	30,792	-6,484	-8,288
광주	-7,224	-1,829	-9,053	8,183	12,209	4,025	-5,028
대전	-3,858	-1,800	-5,657	7,367	4,593	-2,773	-8,431
울산	8,265	2,188	10,453	96,325	110,374	14,049	24,502
경기	-25,636	-7,568	-33,205	130,712	143,744	13,032	-20,172
강원	-3,851	-3,670	-7,521	6,918	2,816	-4,102	-11,623
충북	-158	-2,358	-2,516	18,378	19,189	811	-1,704
충남	14,922	-2,602	12,320	64,533	62,151	-2,383	9,937
전북	**-4,900**	**379**	**-4,521**	**12,832**	**10,400**	**-2,433**	**-6,953**
전남	22,994	-6,567	16,426	58,323	43,129	-15,195	1,232
경북	-2,638	-2,930	-5,568	48,435	66,157	17,723	12,154
경남	-7,802	470	-7,332	45,963	59,807	13,844	6,512
제주	-1,533	27	-1,506	2,254	1,208	-1,047	-2,553

[표 부록-3] 지역별 재화 및 서비스 이출입 현황(2012년)

단위 : 십억원

	국내			해외			총 순이출
	중간재 순이출	최종재 순이출	국내 순이출	수입	수출	해외 순이출	
서울	7,638	47,854	55,492	61,101	60,866	-235	55,257
부산	-2,076	-7,656	-9,732	22,673	18,304	-4,369	-14,101
대구	-194	-8,624	-8,818	10,413	8,057	-2,356	-11,174
인천	6,079	-5,637	442	36,335	30,503	-5,832	-5,390
광주	-7,359	-2,239	-9,598	7,315	11,637	4,321	-5,277
대전	-3,533	-2,375	-5,908	6,730	4,578	-2,152	-8,060
울산	7,609	5,664	13,273	89,662	105,816	16,154	29,427
경기	-24,278	-9,572	-33,849	123,433	143,442	20,009	-13,841
강원	-4,377	-4,274	-8,651	6,309	2,749	-3,560	-12,210
충북	-115	-3,241	-3,356	16,822	18,721	1,899	-1,457
충남	15,918	2,053	17,971	61,252	60,467	-784	17,187
전북	**-6,137**	**131**	**-6,006**	**11,599**	**9,897**	**-1,702**	**-7,708**
전남	22,929	-7,042	15,887	56,803	41,783	-15,020	867
경북	-2,521	-4,035	-6,557	42,952	61,481	18,529	11,972
경남	-7,925	-679	-8,605	43,423	58,776	15,353	6,748
제주	-1,657	-329	-1,986	2,150	1,207	-943	-2,929

[표 부록-4] 지역별 재화 및 서비스 이출입 현황(2013년)

단위 : 십억원

	국내			해외			총 순이출
	중간재 순이출	최종재 순이출	국내 순이출	수입	수출	해외 순이출	
서울	9,866	46,816	56,683	61,587	65,528	3,941	60,624
부산	-2,007	-7,363	-9,370	22,487	19,340	-3,148	-12,518
대구	-1,198	-8,728	-9,927	10,958	8,897	-2,060	-11,987
인천	6,426	-5,695	731	36,334	31,937	-4,396	-3,666
광주	-8,143	-2,161	-10,304	7,594	12,542	4,948	-5,356
대전	-3,539	-1,914	-5,453	6,928	4,985	-1,942	-7,395
울산	4,067	3,821	7,888	87,578	108,229	20,651	28,539
경기	-20,984	-2,774	-23,758	129,954	161,830	31,875	8,117
강원	-4,676	-4,481	-9,157	6,609	3,051	-3,558	-12,714
충북	302	-2,571	-2,269	17,450	19,982	2,532	263
충남	13,826	313	14,139	59,631	60,473	842	14,981
전북	**-5,763**	**316**	**-5,446**	**12,179**	**10,805**	**-1,375**	**-6,821**
전남	23,287	-7,815	15,472	58,493	45,147	-13,346	2,126
경북	-3,141	-5,019	-8,160	44,293	66,066	21,773	13,613
경남	-6,704	-2,432	-9,136	44,792	58,482	13,690	4,554
제주	-1,619	-314	-1,933	2,265	1,357	-908	-2,841

[표 부록-5] 지역별 재화 및 서비스 이출입 현황(2014년)

단위 : 십억원

	국내			해외			총 순이출
	중간재 순이출	최종재 순이출	국내 순이출	수입	수출	해외 순이출	
서울	6,714	48,170	54,884	63,005	68,080	5,075	59,959
부산	-1,452	-7,753	-9,206	23,153	20,682	-2,471	-11,676
대구	-1,224	-9,160	-10,384	11,111	9,078	-2,033	-12,417
인천	11,422	-5,257	6,165	40,957	33,244	-7,713	-1,548
광주	-7,916	-2,388	-10,304	7,726	13,206	5,480	-4,824
대전	-3,447	-1,983	-5,430	7,219	5,429	-1,790	-7,220
울산	2,636	4,304	6,940	84,112	106,092	21,980	28,920
경기	-23,209	-5,485	-28,694	129,092	164,519	35,428	6,734
강원	-4,861	-4,231	-9,092	6,797	3,323	-3,474	-12,567
충북	816	-2,359	-1,543	18,066	21,102	3,036	1,493
충남	15,117	-677	14,441	61,242	60,725	-517	13,923
전북	**-5,108**	**-132**	**-5,241**	**12,401**	**11,005**	**-1,396**	**-6,637**
전남	22,036	-5,535	16,501	53,989	43,199	-10,790	5,711
경북	-3,431	-4,073	-7,505	46,302	71,521	25,218	17,714
경남	-6,460	-3,184	-9,644	44,253	57,992	13,739	4,095
제주	-1,633	-254	-1,888	2,376	1,509	-868	-2,756

[표 부록-6] 지역별 재화 및 서비스 이출입 현황(2015년)

단위 : 십억원

	국내			해외			총 순이출
	중간재 순이출	최종재 순이출	국내 순이출	수입	수출	해외 순이출	
서울	11,950	55,836	67,786	62,805	71,367	8,562	76,348
부산	-575	-7,235	-7,809	23,152	22,147	-1,005	-8,814
대구	-1,474	-9,805	-11,279	11,307	9,439	-1,868	-13,147
인천	10,795	-5,650	5,145	37,342	33,938	-3,404	1,741
광주	-7,520	-2,264	-9,784	7,869	13,969	6,100	-3,684
대전	-3,090	-1,987	-5,077	7,478	5,943	-1,535	-6,612
울산	-2,956	2,648	-308	68,384	97,869	29,484	29,176
경기	-22,721	-5,312	-28,034	132,806	177,701	44,895	16,862
강원	-4,524	-5,000	-9,525	6,829	3,490	-3,340	-12,864
충북	2,270	-2,823	-553	19,161	23,536	4,375	3,822
충남	13,045	-1,562	11,483	54,931	57,505	2,574	14,057
전북	**-4,297**	**-357**	**-4,654**	**12,319**	**11,219**	**-1,100**	**-5,754**
전남	18,062	-6,753	11,309	45,600	39,038	-6,561	4,748
경북	-531	-4,371	-4,902	41,278	62,294	21,016	16,114
경남	-6,835	-4,986	-11,821	40,989	57,130	16,141	4,320
제주	-1,600	-378	-1,979	2,526	1,711	-815	-2,794

[표 부록-7] 지역별 재화 및 서비스 이출입 현황(2016년)

단위 : 십억원

	국내			해외			총 순이출
	중간재 순이출	최종재 순이출	국내 순이출	수입	수출	해외 순이출	
서울	13,580	56,648	70,228	67,674	74,676	7,001	77,229
부산	-1,657	-8,083	-9,740	24,066	22,681	-1,385	-11,125
대구	-1,469	-10,044	-11,513	12,035	9,863	-2,172	-13,685
인천	9,628	-5,090	4,538	38,185	35,697	-2,488	2,050
광주	-7,676	-2,182	-9,858	8,403	14,612	6,209	-3,650
대전	-2,923	-1,738	-4,661	7,972	6,224	-1,747	-6,408
울산	-2,832	2,805	-27	64,620	95,387	30,766	30,739
경기	-24,699	-5,233	-29,932	141,088	187,884	46,796	16,864
강원	-4,493	-4,385	-8,878	7,267	3,747	-3,520	-12,398
충북	2,772	-3,042	-269	20,973	25,233	4,260	3,991
충남	13,206	-2,877	10,329	57,615	60,779	3,164	13,493
전북	**-3,533**	**-691**	**-4,224**	**12,652**	**11,167**	**-1,486**	**-5,710**
전남	17,852	-6,332	11,520	44,703	39,225	-5,479	6,041
경북	-215	-5,025	-5,240	42,693	63,847	21,154	15,915
경남	-5,668	-4,279	-9,947	40,970	56,791	15,821	5,874
제주	-1,872	-453	-2,325	2,925	1,991	-934	-3,259

[표 부록-8] 지역별 재화 및 서비스 이출입 현황(2017년)

단위 : 십억원

	국내			해외			총 순이출
	중간재 순이출	최종재 순이출	국내 순이출	수입	수출	해외 순이출	
서울	15,527	65,826	81,354	73,665	75,132	1,467	82,820
부산	-2,982	-7,423	-10,405	25,736	22,787	-2,949	-13,354
대구	-1,574	-9,194	-10,769	13,057	10,449	-2,608	-13,377
인천	9,648	-4,917	4,731	43,050	38,102	-4,949	-218
광주	-8,337	-1,994	-10,332	9,312	14,898	5,586	-4,745
대전	-3,360	-967	-4,327	8,621	6,133	-2,489	-6,816
울산	-416	460	43	75,625	99,541	23,916	23,959
경기	-30,621	-2,381	-33,002	162,007	215,995	53,988	20,987
강원	-4,688	-4,192	-8,880	8,346	3,984	-4,362	-13,242
충북	1,557	-4,166	-2,608	24,451	30,207	5,756	3,148
충남	15,138	-9,828	5,310	69,898	69,213	-685	4,625
전북	**-3,317**	**-853**	**-4,170**	**13,840**	**11,072**	**-2,768**	**-6,939**
전남	20,533	-7,392	13,142	52,645	42,807	-9,838	3,303
경북	1,338	-6,838	-5,500	44,964	62,811	17,847	12,347
경남	-5,977	-5,980	-11,957	44,118	54,472	10,354	-1,603
제주	-2,469	-161	-2,630	3,237	2,120	-1,117	-3,747

2. 전라북도 연도별·산업별 국내 이출입 현황

[표 부록-9] 전라북도 산업별 국내 이출입 현환(2010년)

단위 : 십억원

	중간재			최종재			합계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농림수산광산품	1,797	1,033	764	897	160	737	2,693	1,192	1,501
음식료품 및 담배	3,599	1,088	2,511	2,700	897	1,803	6,299	1,986	4,314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413	580	-167	294	442	-148	707	1,022	-315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1,450	745	705	33	22	12	1,484	767	717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5,125	5,880	-755	242	552	-310	5,366	6,431	-1,065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3,951	4,487	-536	58	92	-34	4,009	4,579	-569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2,482	4,034	-1,553	4,261	1,237	3,023	6,742	5,271	1,471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1,233	1,785	-552	73	987	-914	1,306	2,772	-1,466
전력, 가스 및 증기	753	1,577	-824	233	197	36	986	1,774	-788
건설	268	40	228	0	0	0	268	40	228
도소매 서비스	1,621	2,856	-1,235	1,138	1,841	-703	2,759	4,697	-1,938
운송서비스	683	1,119	-436	207	256	-49	890	1,374	-484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31	379	-48	355	485	-130	686	864	-178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171	512	-341	107	700	-593	278	1,212	-934
금융 및 보험서비스	541	855	-314	402	499	-97	943	1,354	-411
부동산 및 임대	110	362	-252	126	1,817	-1,691	237	2,179	-1,943
사업서비스	171	1,370	-1,200	430	486	-56	601	1,857	-1,256
공공행정 및국방	10	14	-4	149	191	-42	160	206	-46
교육, 문화 및 사회서비스	44	148	-104	1,029	1,400	-370	1,073	1,548	-475

[표 부록-10] 전라북도 산업별 국내 이출입 현환(2011년)

단위 : 십억원

	중간재			최종재			합계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농림수산광산품	1,990	1,028	961	990	170	821	2,980	1,198	1,782
음식료품 및 담배	3,751	1,193	2,558	2,819	1,005	1,814	6,569	2,198	4,372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488	673	-184	344	506	-162	832	1,178	-346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1,618	791	827	38	23	14	1,655	814	841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5,738	7,003	-1,264	278	708	-429	6,017	7,710	-1,694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5,063	5,285	-222	74	104	-30	5,137	5,390	-253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2,972	4,825	-1,853	5,002	1,451	3,550	7,973	6,276	1,697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1,287	1,991	-704	76	1,120	-1,044	1,363	3,111	-1,749
전력, 가스 및 증기	914	1,918	-1,004	283	212	71	1,197	2,130	-933
건설	278	42	236	0	0	0	278	42	236
도소매 서비스	1,793	3,110	-1,317	1,238	2,035	-797	3,031	5,145	-2,114
운송서비스	648	1,123	-475	193	260	-67	841	1,383	-542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74	415	-41	395	541	-145	769	956	-186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170	551	-381	106	765	-660	276	1,316	-1,041
금융 및 보험서비스	579	930	-350	424	546	-122	1,003	1,476	-473
부동산 및 임대	118	391	-273	135	1,978	-1,842	254	2,369	-2,115
사업서비스	185	1,480	-1,295	459	561	-102	644	2,041	-1,397
공공행정 및국방	11	15	-4	155	207	-53	165	222	-57
교육, 문화 및 사회서비스	47	160	-113	1,095	1,532	-437	1,142	1,692	-550

[표 부록-11] 전라북도 산업별 국내 이출입 현환(2012년)

단위 : 십억원

	중간재			최종재			합계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농림수산광산품	1,961	1,093	868	928	172	756	2,889	1,266	1,624
음식료품 및 담배	3,938	1,277	2,661	2,791	1,022	1,769	6,729	2,299	4,430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618	796	-178	391	583	-191	1,009	1,378	-369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1,611	784	827	36	23	13	1,647	807	841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5,278	7,137	-1,858	238	750	-512	5,516	7,886	-2,370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5,083	5,403	-320	74	106	-32	5,157	5,509	-352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3,271	5,155	-1,883	5,305	1,489	3,816	8,577	6,644	1,933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1,270	2,115	-845	73	1,158	-1,085	1,343	3,272	-1,930
전력, 가스 및 증기	1,107	2,239	-1,132	309	230	78	1,416	2,470	-1,054
건설	300	43	257	0	0	0	300	43	257
도소매 서비스	1,903	3,331	-1,428	1,253	2,131	-878	3,155	5,461	-2,306
운송서비스	626	1,156	-531	176	265	-88	802	1,421	-619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424	468	-44	427	584	-156	852	1,052	-200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180	596	-416	105	795	-690	285	1,392	-1,106
금융 및 보험서비스	608	946	-339	428	546	-118	1,036	1,492	-457
부동산 및 임대	125	423	-297	135	2,052	-1,917	261	2,475	-2,214
사업서비스	219	1,571	-1,353	527	598	-71	745	2,170	-1,424
공공행정 및국방	12	16	-5	155	221	-66	167	238	-71
교육, 문화 및 사회서비스	54	177	-122	1,157	1,654	-497	1,211	1,830	-619

[표 부록-12] 전라북도 산업별 국내 이출입 현환(2013년)

단위 : 십억원

	중간재			최종재			합계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농림수산광산품	2,082	1,166	916	919	163	756	3,001	1,329	1,672
음식료품 및 담배	4,539	1,376	3,163	3,038	1,041	1,997	7,577	2,417	5,160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709	825	-116	447	537	-91	1,156	1,362	-206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1,587	800	787	35	22	12	1,622	822	799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5,253	7,038	-1,785	231	684	-453	5,484	7,722	-2,238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4,970	5,181	-211	71	98	-27	5,041	5,279	-238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3,168	5,051	-1,883	4,989	1,416	3,572	8,157	6,467	1,690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1,321	2,090	-769	73	1,093	-1,020	1,393	3,183	-1,789
전력, 가스 및 증기	1,227	2,535	-1,308	334	238	96	1,561	2,773	-1,212
건설	345	46	299	0	0	0	345	46	299
도소매 서비스	1,902	3,486	-1,584	1,216	2,099	-883	3,118	5,585	-2,467
운송서비스	650	1,155	-506	181	254	-72	831	1,409	-57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443	508	-65	429	596	-166	872	1,103	-231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188	636	-449	106	815	-708	294	1,451	-1,157
금융 및 보험서비스	601	945	-344	412	527	-115	1,014	1,472	-458
부동산 및 임대	131	453	-322	139	2,114	-1,976	269	2,567	-2,298
사업서비스	248	1,694	-1,446	581	620	-39	829	2,314	-1,485
공공행정 및국방	13	18	-5	165	230	-65	178	248	-70
교육, 문화 및 사회서비스	59	196	-137	1,238	1,740	-502	1,297	1,936	-639

[표 부록-13] 전라북도 산업별 국내 이출입 현환(2014년)

단위 : 십억원

	중간재			최종재			합계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농림수산광산품	2,088	1,178	911	907	160	747	2,996	1,338	1,658
음식료품 및 담배	4,791	1,426	3,365	3,103	1,054	2,049	7,894	2,480	5,414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628	764	-136	392	529	-137	1,020	1,293	-273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1,549	815	734	34	23	11	1,583	838	745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5,205	6,801	-1,596	223	680	-457	5,428	7,482	-2,053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5,317	5,187	130	78	99	-21	5,395	5,286	109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3,131	5,006	-1,875	4,845	1,425	3,421	7,976	6,431	1,545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1,231	1,965	-734	68	1,071	-1,003	1,299	3,036	-1,737
전력, 가스 및 증기	1,277	2,541	-1,264	343	251	92	1,620	2,791	-1,172
건설	361	49	312	0	0	0	361	49	312
도소매 서비스	1,894	3,466	-1,573	1,202	2,088	-886	3,096	5,554	-2,459
운송서비스	659	1,184	-525	185	259	-74	844	1,443	-599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481	545	-64	454	637	-182	936	1,182	-246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199	656	-457	112	840	-728	311	1,496	-1,185
금융 및 보험서비스	619	956	-338	415	535	-120	1,033	1,491	-458
부동산 및 임대	143	493	-350	148	2,281	-2,133	291	2,775	-2,483
사업서비스	267	1,766	-1,499	616	693	-77	884	2,459	-1,576
공공행정 및국방	14	19	-6	174	245	-71	188	264	-76
교육, 문화 및 사회서비스	60	205	-145	1,276	1,839	-562	1,337	2,044	-707

[표 부록-14] 전라북도 산업별 국내 이출입 현환(2015년)

단위 : 십억원

	중간재			최종재			합계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농림수산광산품	2,130	1,222	909	898	161	737	3,028	1,383	1,645
음식료품 및 담배	5,087	1,526	3,561	3,160	1,089	2,071	8,247	2,615	5,632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615	739	-124	387	511	-124	1,003	1,250	-247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1,504	835	669	32	23	8	1,536	858	67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4,776	5,922	-1,146	206	592	-386	4,981	6,513	-1,532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4,996	4,784	213	74	98	-24	5,070	4,882	188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3,259	5,129	-1,870	4,988	1,472	3,515	8,247	6,601	1,645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1,160	1,912	-752	65	1,050	-986	1,224	2,962	-1,738
전력, 가스 및 증기	828	1,663	-835	230	229	0	1,058	1,892	-835
건설	352	54	298	0	0	0	352	54	298
도소매 서비스	1,960	3,643	-1,683	1,254	2,210	-956	3,215	5,853	-2,638
운송서비스	715	1,231	-516	202	271	-70	917	1,503	-586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520	617	-97	476	687	-211	996	1,304	-308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197	689	-492	108	866	-758	305	1,555	-1,250
금융 및 보험서비스	635	1,001	-366	417	552	-135	1,052	1,553	-501
부동산 및 임대	152	543	-391	154	2,440	-2,286	306	2,983	-2,677
사업서비스	291	1,807	-1,516	672	767	-96	962	2,574	-1,612
공공행정 및국방	15	20	-6	184	259	-75	199	279	-80
교육, 문화 및 사회서비스	63	216	-153	1,352	1,935	-583	1,415	2,151	-736

[표 부록-15] 전라북도 산업별 국내 이출입 현환(2015년)

단위 : 십억원

	중간재			최종재			합계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농림수산광산품	2,130	1,222	909	898	161	737	3,028	1,383	1,645
음식료품 및 담배	5,087	1,526	3,561	3,160	1,089	2,071	8,247	2,615	5,632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615	739	-124	387	511	-124	1,003	1,250	-247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1,504	835	669	32	23	8	1,536	858	67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4,776	5,922	-1,146	206	592	-386	4,981	6,513	-1,532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4,996	4,784	213	74	98	-24	5,070	4,882	188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3,259	5,129	-1,870	4,988	1,472	3,515	8,247	6,601	1,645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1,160	1,912	-752	65	1,050	-986	1,224	2,962	-1,738
전력, 가스 및 증기	828	1,663	-835	230	229	0	1,058	1,892	-835
건설	352	54	298	0	0	0	352	54	298
도소매 서비스	1,960	3,643	-1,683	1,254	2,210	-956	3,215	5,853	-2,638
운송서비스	715	1,231	-516	202	271	-70	917	1,503	-586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520	617	-97	476	687	-211	996	1,304	-308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197	689	-492	108	866	-758	305	1,555	-1,250
금융 및 보험서비스	635	1,001	-366	417	552	-135	1,052	1,553	-501
부동산 및 임대	152	543	-391	154	2,440	-2,286	306	2,983	-2,677
사업서비스	291	1,807	-1,516	672	767	-96	962	2,574	-1,612
공공행정 및국방	15	20	-6	184	259	-75	199	279	-80
교육, 문화 및 사회서비스	63	216	-153	1,352	1,935	-583	1,415	2,151	-736

[표 부록-16] 전라북도 산업별 국내 이출입 현환(2016년)

단위 : 십억원

	중간재			최종재			합계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농림수산광산품	2,133	1,155	977	898	158	739	3,030	1,314	1,716
음식료품 및 담배	4,967	1,521	3,446	3,036	1,063	1,974	8,003	2,584	5,420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544	663	-119	355	482	-127	899	1,144	-246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1,547	854	693	33	24	9	1,580	878	702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4,827	5,640	-813	212	564	-352	5,039	6,204	-1,165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4,668	4,378	290	71	97	-26	4,739	4,475	264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2,880	4,653	-1,773	4,550	1,433	3,117	7,430	6,086	1,344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1,038	1,771	-733	60	1,016	-957	1,098	2,788	-1,690
전력, 가스 및 증기	766	1,513	-747	220	225	-5	986	1,738	-752
건설	346	59	286	0	0	0	346	59	286
도소매 서비스	1,999	3,623	-1,624	1,309	2,262	-954	3,307	5,885	-2,578
운송서비스	750	1,199	-449	218	268	-50	968	1,467	-49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565	670	-105	522	736	-214	1,086	1,405	-319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203	703	-500	112	874	-762	315	1,577	-1,262
금융 및 보험서비스	670	1,004	-334	437	551	-114	1,107	1,554	-448
부동산 및 임대	162	572	-410	164	2,514	-2,349	326	3,085	-2,759
사업서비스	320	1,778	-1,457	744	784	-40	1,064	2,561	-1,497
공공행정 및국방	16	21	-5	203	264	-61	219	285	-66
교육, 문화 및 사회서비스	66	222	-156	1,459	1,979	-521	1,525	2,202	-677

[표 부록-17] 전라북도 산업별 국내 이출입 현환(2017년)

단위 : 십억원

	중간재			최종재			합계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이출	이입	국내 순이출
농림수산광산품	2,201	1,150	1,051	929	160	769	3,130	1,309	1,820
음식료품 및 담배	5,089	1,553	3,536	3,155	1,096	2,060	8,244	2,648	5,595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455	583	-128	326	443	-117	781	1,026	-245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1,543	844	698	34	24	10	1,576	868	70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5,020	6,098	-1,078	234	626	-392	5,254	6,725	-1,471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5,668	4,860	807	89	101	-12	5,756	4,961	795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2,518	4,366	-1,848	4,166	1,482	2,685	6,684	5,848	836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1,099	1,938	-839	67	1,112	-1,045	1,166	3,050	-1,884
전력, 가스 및 증기	765	1,532	-766	231	220	10	996	1,752	-756
건설	412	64	348	0	0	0	412	64	348
도소매 서비스	2,058	3,689	-1,631	1,393	2,328	-935	3,451	6,016	-2,566
운송서비스	786	1,184	-397	231	263	-33	1,017	1,447	-43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594	704	-110	549	748	-199	1,143	1,452	-309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202	735	-533	113	893	-779	315	1,627	-1,312
금융 및 보험서비스	723	1,054	-332	469	567	-98	1,191	1,621	-430
부동산 및 임대	171	603	-432	178	2,597	-2,419	349	3,200	-2,851
사업서비스	348	1,849	-1,501	811	794	17	1,159	2,643	-1,484
공공행정 및국방	18	22	-4	234	267	-32	252	288	-36
교육, 문화 및 사회서비스	72	230	-159	1,650	1,991	-342	1,721	2,222	-500

기획연구 2021-02

전라북도 중장기 경제 정책 수립 방안 연구 Ⅰ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1년 7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01-8 935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

비매품/무료
93320
9 788966 123292
ISBN 978-89-6612-329-2